

[기획] >> 3면
신입생 운영 사각지대

[특별기획] >> 4-8면
총장 후보자 인터뷰

[사회문화] >> 9면
청년층 슷폼 중독현상

[심층] >> 12면
사회 문제가 된 청년들의 우울증

우리학교를 이끌 제13대 총장, 그 주인공은?



이번 달 24일 1차 투표를 시작으로 우리학교의 미래를 이끌어 갈 총장 선거가 시작된다. 각 후보자들의 생각이 담긴 인터뷰를 함께 살펴보자.

▶ 4면에서 계속

우리학교 이탈리아연구센터, 페르디난도 켈리 주한이탈리아무역관장 초청 세미나 개최

우리학교 이탈리아 연구센터는 지난 5일 오후 3시 서울 캠퍼스 본관 225호 전성철 강의실에서 페르디난도 켈리(Ferdinando Gueli) 주한이탈리아 무역관장을 초청해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의 경제 및 무역 관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해는 우리나라와 이탈리아가 수교 14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로 양국은 경제·문화·정치 전반에 걸쳐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지난 9월 24일 뉴욕에서 열린 국제연합 총회 계기 약식 정상회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지아 멜로니(Giorgia Meloni) 총리는 양자 관계의 발전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또한 양국은 지난 9월 5일 서울에서 열린 제1회 한-이탈



리아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전통적 교류를 넘어 △반도체 △배터리 △항공우주 등 첨단 산업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전략물자 및 핵심광물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경제안보 차원의 공조 역시 강화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018년 체결된 한-이탈리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통해 양국이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 속에서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의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하은 기자 11haeun@hufs.ac.kr

우리학교 G-RISE사업단, 용인시 소공인·스타트업 허브 입주기업과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우리학교 G-RISE(Gyeonggi-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사업단은 지난달 28일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중회의실에서 용인시 소공인·스타트업 허브(StartupHub) 입주 5개 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창업기업과 대학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반도체 및 스마트 제조 분야의 실전형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마련됐다. 협약식에 스강민호 에스시티 대표·스강현석 용인시산업진흥원 산업진흥본부장(이하 권 본부장) △박순구 라텔세미컨덕터(Retel Semiconductor) 대표·심현섭 (쥬모터헤드(Motorhead) 대표·이윤석 G-RISE사업단장(이하 이 단장) △이응우 오스(Os)(주) 대표·배홍상 (쥬페이아이리서치(Pairesearch)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우리학교 G-RISE사업단은 협약기업과 함께 △산학연계 실무형 교육·상생협력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지역기업 맞춤형 인재 매칭 등 △지(지역)△산(산업)△학(학교)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 본부장은 "RISE사업은 지역과 대학이 협력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며 "이번 협약이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용인시 소공인·스타트업 허브 입주기업 간 협력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창업기업과의 실질적 협력 기반을 확충하고 대학의 기술·역량과 교육자원을 지역 산업 성장으로 연결하는 △지△산△학 얼라이언스(Alliance)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 11haeun@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공공리더십대학원(야간) 2026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6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5.09.17(수) ~ 10.01(수)	2025.11.19(수) ~ 12.03(수)
고사장 발표	2025.10.15(수) 15:00	2025.12.10(수) 15:00
면접전형	2025.10.18(토) 10:00 예정	2025.12.13(토) 10:00 예정
입격자 발표	2025.10.31(금) 15:00	2025.12.26(금)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5.11.03(월) ~ 11.07(금)	2025.12.29(월) ~ 01.02(금)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의회행정학과(공공정책, 의회행정)

나. 외교안보학과(외교안보, 북한, 국가안보)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외교안보학과 국가안보전공 지원자격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군사·안보 전문 분야(예:군, 정보기관, 국가 안보 분야 등)에서 최소 1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보유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글로벌공공리더십대학원 홈페이지-입학안내-대학원 입학 안내-대학원 원서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제출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차제출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면접 고사실 및 시간은 추후 공지)

7. 기타사항

가. 장학금(장학금은 입학 후 장학위원회를 통해 결정됨)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성적우수 장학금/공로 장학금/학비감면 장학금/원우회 임원 장학금

※ 외교안보학과 국가안보전공: 입학전 전액 장학금 50%를 장학금으로 지급

나. 주말수업(토요일) 개설 / 평일수업 19시 시작(본 대학원 내 학과간 교차수강 가능)

다. 온라인 병행수업 진행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p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2팀(글로벌공공리더십대학원)

TEL. 02-2173-2428 FAX. 02-2173-3358

(우)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디지털융합인재를 양성하는 GMC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2026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특별·일반 전형)

1. 2026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 전형 일정	일반 전형	장소
원서접수	2025.9.22(월) - 10.2(목)	2025.11.17(월) - 11.28(금)	유에이홀라이 원서접수
서류제출	2025.9.22(월) - 10.2(목)	2025.11.17(월) - 11.28(금)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대학원 111호) 우편제출은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함
면접대상자 발표	2025.10.15(수) 15:00	2025.12.10(수) 15:00	개별 공지
면접전형	2025.10.18(토) 10:00	2025.12.13(토) 10:00	화상면접
합격자발표	2025.10.31(금) 15:00	2025.12.26(금) 15:00	홈페이지에서 확인
합격자등록	2025.11.3(월) - 11.7(금)	2025.12.29(월) - 2026.1.2(금)	우리은행 전국 자점 가상계좌 납부가능

*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족 상황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미디어비즈니스·엔터테인먼트 - 오프라인 과정

나. 디지털미디어융합전공 - 온라인 과정

3. 지원자격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제출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차제출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6. 전형장소: 화상면접(추후 공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gsgmc.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8.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학처

TEL. 02-2173-3282 FAX. 02-2173-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긴 호흡으로 마무리된 공개토론회, 외대인의 선택만이 남은 지금 우리학교는

지난 3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사이버관 대강당에서 제13대 총장후보선거 2차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선 '대학의 경영과 거버넌스'를 주제로 각 후보자의 계획과 생각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는 △개최선언△개회인사△후보자 발언△그룹 응답제 및 답변△후보자 상호질의△마무리 발언△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공통 질의응답 시간이었던 그룹 응답제는 크게 송도 캠퍼스(이하 송도캠) 운영방안과 법인과의 관계 정립에 대해 후보자들이 답변했다. 첫 번째 그룹 응답제 시간에선 송도캠 운영방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운영철학을 묻는 시간을 가졌다. 후보자들은 송도캠의 △각 캠퍼스 간 차별화 이슈△적정 정원 규모△필요 투자 규모 및 재정확보 계획△효율적인 운영 구조 등 현실적인 구상에 대해 공통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그룹 응답제 시간에선 법인과의 관계 정립을 주제로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계획과 생각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9인의 후보자들은 학교법인이 우리 학교에 부담해야 할 재정적 책무에 대한 후보자의 원칙과 현실적 목표 그리고 법인의 재정 책무 강화를 위한 후보자만의 계획을 설명했다.

2차 공개토론회가 열린지 일주일 후인 지난 10일엔 3차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선 △교수(연구 및 처우 등)△직원(행정 및 복지) △학생(교육 및 복지 등) 각 주체별 정책 각론이 다루어졌다. 이번 3차 공개토론회에서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선거 토론의 형식을 표준으로 한 자유 주제의 주도권 토론이 진행됐던 점이다. 그룹 응답제로 토론했던 2차 토론회와 달리 모든 후보자들이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3차 토론회에

선 상호 토론제 방식인 단순 질답형과 주도권 토론이란 방식이 도입됐다. 단순 질답형 시간에선 '주체별 각론'을 다룸으로써 후보자들의 심층적인 정책 이해와 비전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제13대 총장선거 투표는 오는 △24일 1차 투표△27일 2차 투표△28일 3차 투표를 통해 이루어진다. 1차 투표에서 10% 이상의 득표율을 달성하지 못한 후보자는 자동 탈락 처리되며 10% 이상 득표를 하더라도 1순위부터 5순위까지의 후보들만 2차 투표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다. 2차 투표에선 과반의 투표수를 얻은 후보자가 나올 경우 그 즉시 총장에 당선된다. 만약 과반의 투표수를 얻은 후보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가장 많이 득표한 두 후보자를 대상으로 3차 투표를 진행해 과반을 얻은 후보가 총장에 당선된다.

이하은 기자 11haeun@hufs.ac.kr

故 김희경 '(재)김희경유럽정신문화장학재단' 명예이사장, 우리학교 명예철학박사 학위 수여 받아

우리학교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서울캠퍼스 도서관 5층 힐라아쿠쉬네트홀에서 故 김희경 (재)김희경유럽정신문화장학재단 명예이사장(이하 김 명예이사장)에게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엔 △故 김희경 명예이사장의 장녀 김정옥 현 재단 이사장(이하 김 이사장)△박정운 우리학교 총장△수자나 바쉬 파투(Susana Vas Patto) 주한 포르투갈 대사△장남 민영기 대표△재단 이사를 비롯한 교내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하고 그 철학을 되새겼다.

박정운 총장은 수여사에서 "故 김 명예이사장님께서 평생을 사람을 위한 길에 헌신하며 인문 정신의 가치를 실천하신 분으로 그 삶은 곧 한 편의 인문학이자 교육 철학이었다"며 "인간을 이해하고 타자를 잇는 인문학의 정신은 우리학교의 교육이념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오늘 명예박사 수여는 고인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우리 사회와 인류의 지성에 남긴 빛을 다시 새기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故 김 명예이사장은 지난 1923년 평안북도 회천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전쟁△분단의 격동기를 온몸으로 살아낸 세대의 지성인이었다. 검소함과 절제를 바탕으로 "나눔을 통해 더 나은 공동체를 이룩하겠다"



는 철학을 평생 실천했다. 특히 '민족의 미래는 인문 정신의 창달과 교육에 달려 있다'는 확신으로 인문학 인재를 위한 장학사업에 뜻을 세웠으며 지난 2005년 '김희경 유럽정신문화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대학생

과 연구자들이 재단의 장학금으로 학문의 꿈을 키워왔으며 고인이 남긴 철학은 재단과 후학들의 삶 속에서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장녀 김 이사장이 어머니의 뜻을 이어 재단을 이끌고 있다. 우리학교는 유럽 관련 학과들과 인문계열 전공들을 중심으로 재단의 장학사업 혜택을 꾸준히 받아오며 깊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김 이사장은 답사를 통해 "어머니께서 나에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평생에 걸쳐 꾸준히 인문 정신의 가치를 실천해 오셨다"며 "오늘 명예박사 추서는 어머니의 뜻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감격스런 순간이다"고 전했다. "김희경유럽정신문화장학재단은 지난 20년간 인문학 인재를 길러왔다"며 "앞으로도 한국의국어대학교와 함께 인문학의 씨앗을 세계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문학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힘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하은 기자 11haeun@hufs.ac.kr

우리학교, 코람코자산신탁 운용로 회장 초청 2025 'HUFS특강' 개최

우리학교는 지난달 29일 서울캠퍼스 도서관 힐라아쿠쉬네트홀에서 윤용로 코람코(Koramco)자산신탁 회장(이하 윤 회장)을 초청해 2025 'HUFS특강'을 개최했다.

'HUFS특강'은 △국제통상△외교△인문학 등 우리학교가 가진 전통적 강점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의제를 접목해 △재학생△졸업생△지역 청년들에게 인문학적 소양과 진로 역량을 함양할 기회를 제공하는 우리학교 대표 강연 프로그램이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윤 회장은 민관을 두루 거친 금융 전문가로 알려졌다. 제21회 행정고시 합격 이후 △재무부(현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기업은행장과 외환은행장을 지냈다. 현재는 코람코자산신탁 회장으로 재임하며 종합자산관리 및 투자 업무 전반을 이끌고 있다.

윤 회장은 'VUCA 시대의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변동성(Volatility)△불확실성(Uncertainty)△복잡성(Complexity)△모호성(Ambiguity)으로 대표되는 대변혁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 조언했다. 윤 회장은



"국제적 식견이 중요한 이 시기에 언어를 기반으로 세계의 △경제△문화△정치를 통찰할 수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한국외대)는 기회의 대학"이라며 "한국외대 학생들이 그 기회를 잡고 세계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연 사회를 맡은 주현서(서양어·스페인어 23) 씨는 "질의응답을 통해 연사님과 직접 소통하며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참석 학생 A 씨는 "취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강연을 통해 미래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 11haeun@hufs.ac.kr

우리학교, 외교관 후보자 2년 연속 수석5급 국제통상직에서도 수석 배출

우리학교는 지난달 24일 이번 해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에서 총 8명과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 7명의 최종 합격자를 배출했다. 특히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수석에 최현도 씨(통번역·영어 11, 이하 최 씨)와 5급 공채 국제통상직 수석에 양하영 씨(LD 21, 이하 양 씨)가 나란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학교는 2년 연속 외교관 수석 배출과 함께 5급 공채 국제통상직 수석까지 배출했다.

이번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일반외교 최종 합격자는 43명이며 이중 우리학교 출신 합격자가 8명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1,249명의 응시자 중 수석을 차지해 우리학교의 외교 전문 인재 양성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시험에선 △국제통상직 2명△일반행정직 4명△재경직 1명 등 총 7명이 최종 합격했다. 특히 양 씨는 국제통상직 수석으로 합격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같은 시험에서 4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데 이어 이번 해엔 7명으로 합격자를 3명 더 늘리는 한편 다양한 직렬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우리학교는 외교 및 행정 분야에서 꾸준히 우수 인재를 배출하며 '국가 전략 인재 사관학교'로서의 역할

을 수행해 왔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LD학부 교수)△박상미 주유네스코(Unesco)대한민국대표부 대사(국제학부 교수)△박진 전 외교부 장관(국제지역대학원 유엔평화학과 석좌교수 역임)△윤덕민 전 주일대사(사회·정의 79)△조현동 전 주미대사(서양어·스페인어 78) 등 동문과 교수진의 활동은 이러한 명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의 대사관 및 공관에서 다수의 동문이 외교 실무와 국제 협력 분야에서 활약하며 우리학교의 외교 인재 지력을 보여주고 있다. 박정운 우리학교 총장은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외교관과 고위 공직자 배출은 우리학교가 오랜 기간 이어온 전통이자 자부심이다"고 합격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국가 발전과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다하는 인재로서 활약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하은 기자 11haeun@hufs.ac.kr



이하은 기자 11haeun@hufs.ac.kr

우리학교 신입생 운영의 사각지대, 학생들의 동등한 출발을 위해선

지난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며 수험생들의 대학 입시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전국의 대학이 수시와 정시 전형에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학교 역시 두 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정시 전형 입학생은 수시

전형 입학생보다 합격 발표가 늦어 불리한 처지에 놓이곤 한다. △우리학교 신입생 선발 현황 및 구조적 문제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학교 신입생 선발 현황 및 구조적 문제점

우리학교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정시 전형 입학생의 경우 △일반전형의 합격생은 다음 해 1월 26일부터 △특별전형의 합격생은 다음 해 2월 2일부터 △결원 보충에 따른 추가합격생은 다음 해 2월 6일부터 12일까지 각 지원자에게 주어진 예비번호에 따라 총원이 이뤄진다. 이같은 상황에서 통상 먼저 발표되는 수시 전형 합격자는 학교의 여러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사전 신청 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정시 전형 합격자는 각종 사전 행사의 마감으로 인해 참여에 제한이 발생한다. 결국 같은 신입생임에도 불구하고 출발선이 다르다 지적이 제기된다.

일례로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는 지난해까지 입학 전 SW 교육과 신입생 아카데미를 수시 전형 입학생을 대상으로만 진행했다. 정시 전형 입학생이라 SW 교육을 신청할 수 없었다던 서예지(아시아·인도어 24) 씨는 “경쟁률이 높은 소프트웨어 기초 필수 과목을 미리 수강할 수 있다는 점이 부러웠다”며 “정시 전형 입학생에게 수강 기회조차 적용되지 않았던 점에서 아쉽다”고 밝혔다.

단순히 학습권 문제 뿐 아니라 학기 초 학교 적응에도 차이가 발생했다. 신입생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이수했던 주영빈(영어·영문 24) 씨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 꾸준히 교류하고 있다”며 “입학 전 선배들의 멘토링과 각종 교육으로 학교에 대한 정보를 익힐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사전에 교류를 하고 첫 학기에 진입하는 수시 전형 입학생과 달리 정시 전형 입학생은 처음부터 학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다른 학생들과 교류해야 한다.

우리학교의 신입생 운영 구조 속에서 정시 전형 입학생은 △교류△학사△행정 전반에서 구조적 불이익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제한적인 각 단위별 행사의 참여 기회다. 앞서 언급한 SW 교육과 신입생 아카데미 외에도 각 단과대 및 학과는 입학 전 신입생 단체 채팅방 개설을 시작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대표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이하 오티)과 새내기 새로배움터(이하 새터) 등을 통해 신입생의 학교생활 이해와 적응을 돕고 선배 및 동기와의 친분 형성을 도모한다. 그러나 정시 전형 추가합격생은 비교적 늦은 합격 시기로 인해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오티와 새터 같은 대형 행사는 주로 2월 중순에 진행돼 이후에 합격한 학생은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은 학우들과 함께 학교 분위기를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해 심적으로 불안감과 아쉬움을 느낄 수 있다. 일례로 이번 해 아시아언어문화대학 학생회는 지난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새터를 진행했지만 늦게 합격 통보를 받은 정시 전형 입학생들은 참여할 수 없었다. 정시 전형으로 뒤늦게 추가 합격해 새터에 참여하지 못한 재학생 A 씨는 “늦게 시작한 느낌이라 불안했고 동기들을 만나지 못해 아쉬웠다”고 전했다.

정시 전형 입학생들은 기숙사 신청 및 입사에서 불이익을 겪는다. 설캠 기숙사 글로벌홈페이지의 입사 안내 공지에 따르면 신입생 입사 신청은 통상적으로 1월 초부터 말까지 진행되며 선발

자 발표는 2월 초에 이뤄진다. 또 지난 1월 게시된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기숙사 흡스돔 사생 모집 공고에 따르면 신·편입생 입사 신청 기간은 1월 31일부터 2월 12일로 안내돼 있다. 결과적으로 2월 중·후반에 합격 통보를 받는 정시 전형 추가합격생은 기숙사 신청이 어려워지고 학교와 먼 거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주거 문제 및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우리학교 재학생 B 씨는 그 결과 지난 2월 14일 오후 6시경에 3차 추가 정시 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당일 5시에 마감된 기숙사 신청으로 인해 곤욕을 치러야 했다. B 씨는 “학교에 문의했지만 개강 후의 현장 접수 외엔 방안이 없던 답변만 돌아왔다”며 “결국 급

시된 영어진단평가는 2월 12일까지 등록을 마친 신입생만 응시할 수 있었다. 특히 신입생 영어진단 평가 일자보다 늦게 입학한 학생의 경우 개강 이후인 지난 3월 4일 별도로 시험에 응시해야 해 교양 필수 과목에 해당하는 대학외국어를 정정 기간이 돼서야 신청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과 진단평가 일정이 겹쳐 응시가 어려운 학생도 더러 있었다. 각 학과별 자체 진단 평가가 개강 이후에 치러지는 경우 유사한 문제를 전공 수업에서도 겪게 된다. 일례로 ELLT학과의 경우 입학 전 캠퍼스로 등교해 영작 시험을 치르도록 한다. 이후 해당 시험 결과에 따라 자신의 작문 과목 분반이 정해진다. 이 때 추가합격으로 입학해 시험에 미응시

◆나아가야 할 방향

모든 신입생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늦은 입학으로 정보 및 행사 참여 기회를 놓친 학생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먼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학과별 오티 영상 또는 자료를 상시 제공해 입학 시차로 인한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일례로 지난 2023년 우리학교 중국대학 학생회는 새터에 참가하지 못한 △입학 예정생 △재학생△편입생을 위한 추가적인 비대면 오티를 진행해 참가하지 못한 학생들의 입학 적응과 공평성을 도모한 바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시절 시행됐던 여러 비대면 새터 및 오티와 같이 입학 전 학생들을 모아 비대면으로도 만남을 갖고 학교생활과 관련한 여러 정보들을 안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는 정시 전형 추가합격생처럼 물리적으로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서로 간 안면을 트고 학교생활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의 일부 대학이 시행하고 있는 ‘브릿지 프로그램(Bridge Transition Program)’을 도입하는 것 또한 방법이다. 브릿지 프로그램은 늦게 입학하거나 준비가 필요한 신입생들에게 제공되는 집중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업 및 생활 적응을 돕는다. 대표적으로 미국 클렘슨 대학교(Clemson University)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등록 및 수강 준비와 기초과목 보강 프로그램을 제공해 초반 학업 성취도 개선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신입생 아카데미나 SW 교육과 같은 사전 프로그램도 수시 전형 입학생 전용으로 운영하기보다 정시 전형 입학생을 위한 별도의 회차를 마련하거나 개강 후 정시 전형 입학생 전용 프로그램 수강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일정상 참여가 어렵더라도 녹화 강의나 교재를 제공한다면 학습 공백을 줄이고 학생을 배려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모든 신입생에게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적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일정 및 우선권을 조정해 △기숙사△수강신청△진단평가 등의 제도를 신입생의 합격 시점과 관계없이 동등한 신청권을 보장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추가합격자를 위한 별도 신청 창구나 예비정원을 두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추가합격으로 기숙사 입소 신청을 하지 못했던 B 씨는 “정시 전형 추가합격생을 위한 기숙사 여유 정원을 만들어야 한다”며 개선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대학교는 기숙사 선발에 수시와 정시 신입생을 구분해 선발하고 있으며 최초합격자 외 예비순위자도 미리 신청을 가능하게 만들어 학생들의 원활한 기숙사 입소를 돕고 있어 참고해 볼 직하다. 모두가 소외받지 않고 함께 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비로소 진정한 대학 공동체가 완성될 것이다.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입학원서 접수	2025. 12. 29.(월) 10:00 ~ 12. 31.(수) 17:00	· 입학처 홈페이지	· 입학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실시 (원서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하고 24시간 접수 가능)
서류 제출 (해당자에 한함)	2025. 12. 29.(월) 10:00 ~ 2026. 1. 2.(금) 17:00	· 원서접수 사이트	· 모든 서류는 온라인 제출 (방문 및 우편 제출 불가) · 제출 서류 업로드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1.2.(금) 17시까지 가능 (17시 이후 절대 업로드 불가)
최초 합격자 발표	일반전형	2026. 1. 26.(월) 14:00	· 입학처 홈페이지
	특별전형	2026. 2. 2.(월) 14:00	
최초 합격자 등록	2026. 2. 3.(화) ~ 2. 5.(목)	·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	
추가 합격자 발표	2026. 2. 6.(금) ~ 2. 12.(목) 18:00		
추가 합격자 등록	2026. 2. 6.(금) ~ 2. 13.(금)		· 추가 합격자 세부 발표 일정 및 등록 안내는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 상기 일정은 본 대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 미등록으로 인한 추가합격자 통보 마감은 2026. 2. 12.(목) 18:00까지입니다.
· 추가 합격자 통보 마감일 이후에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예비합격자의 추가 합격 기회가 차단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수험생의 입학 기회를 박탈하게 되므로 추가 합격 시 안내되는 등록 마감 일시까지 정해진 등록 포기 절차를 반드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학교 2026학년도 정시 전형 일정 (출처: 우리학교 입학처)

히 자취방을 알아봐야 해 막막했다”고 당시의 심정을 밝혔다.

이에 대해 글로벌홈 기숙사 운영팀은 “추가합격생을 위한 별도의 구제 방안은 없고 개강 후 일리는 추가 모집으로만 입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흡스돔 기숙사 운영팀의 경우 “유선 및 이메일 등을 통해 구제를 위해 최대한 노력 중이며 1학기 신·편입생 배정 비율을 높게 해 이들을 배려하고자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또 “기숙사비 미납 등 기타 사유로 취소 인원이 발생하는 경우 기숙사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모집을 한다”며 “추가합격생들도 최대한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매 학기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시 전형 추가합격생들은 추가 합격생들의 영어진단 평가가 개강 이후에 진행됨에 따라 강의 수강 신청에 관한 불이익도 있었다. 실제로 설캠 외국어 교육센터의 학사정보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실

한 학생은 별도 대응 기회 없이 일반반에 배정한다. 이에 대해 앞서 기숙사 신청 문제로 곤란을 겪은 ELLT학과 신입생 B 씨는 “고급반 수업을 듣고 싶었으나 수강 신청이 한정적이었으며 이 제한이 2학기 전공 필수 과목까지도 해당이 돼 아쉬웠다”고 밝혔으며 “수강 신청할 때가 돼서야 그 존재를 알게 됐고 학과에 전화해서 직접 알아봐야 했다”며 불편을 토로했다.

그 외에도 정시 전형 추가모집생의 경우 수강신청마지막도 정정 기간이 돼서야 비로소 참여 가능하다. 추가모집으로 입학한 학생 C 씨는 “전공 필수 과목이 마감돼 학부장실에 문의해 증원 요청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대학영어의 경우에도 이미 인원이 찼던 터라 따로 증원 신청을 했음에도 행정 절차상 증원이 불가능하던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우리학교를 이끌 제13대 총장, 그 주인공은?



▲후보자 인터뷰 전문 보기

1. 총장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검증된 운영 역량’과 ‘신뢰 회복’을 꼽고 싶습니다. 저는 사이버한국외국어 대학교(이하 사이버한국외대) 총장으로서 사이버한국외대를 3년 동안 발전시킨 성과로 리더십을 검증했습니다. 검증된 실천력으로 △교수에게 전임교원 확충과 연구비 지원△직원에게 경력개발 기회 확대와 공정한 처우 개선△학생에게 장학금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을 약속드립니다. 신뢰 회복을 위해 취임 즉시 ‘100일 신뢰 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해 전 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주요 지표와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참여예산제 도입△총장 간담회 정례화△캠퍼스톡 개설 등으로 제도적 소통 창구를 마련해 합의된 정책을 공론화 후 추진하겠습니다.

2. 핵심 공약 3가지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핵심 공약은 △대학 경쟁력 강화△연령대별 Hufs 커리어포워드 인증 프로그램△혁신 교육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먼저 맞춤형으로 학생을 지원하는 24시간 AI언어·취업튜터를 도입하겠습니다. 나아가 ‘연령대별 Hufs 커리어포워드 인증 프로그램’ 도입을 도입하겠습니다. 재학 중 △멘토링△산학 프로젝트△인턴십으로 실무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평가 확대와 학점포기제 도입으로 유연한 학습을 돕겠습니다. 또한 △교수 연구 생산성 향상△직원 전문성 교육 지원△행정 업무 자동화로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삼성역 벤처창업대학원△이문동 AI 연구시설과 스마트 강의실△

총무로 미디어 산학협력 허브를 구축해 혁신 교육 클러스터를 완성하겠습니다.

3. 총장이 된다면 만들어 가고 싶은 우리학교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이를 함축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을까요?

△H(정체성)△U(융합)△F(미래)△S(도약)입니다. 우리학교의 고유한 정체성인 어문학과 지역학에 AI 및 첨단기술을 융합해 미래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양한 혁신 교육 프로그램으로 우리학교 학생들의 역량을 최대화하고 CJ ENM 계약학과 신설과 같은 신산업 연계 분야를 개척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원은 학생 장학제도 개편과 교직원 복지 강화에 투입하겠습니다.

4.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우리학교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교육△연구△행정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분야에선 모든 신입생에게 AI 및 데이터 기초 교육을 실시하고 전공별로 AI 활용 필수 과목을 도입해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연구 분야에선 ‘이문 AI 언어연구소’와 ‘글로벌캠퍼스 R&D허브’를 연계해 다국어 AI 등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산업계 공동연구로 글로벌 AI 연구를 선도하겠습니다. 행정 분야에선 AI 학사 행정 시스템으로 성적과 졸업 등 학적 관리를 디지털화하고 전자서명을 도입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5. 현재 우리학교가 처한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교육 및 연구 혁신△복지 향상△신뢰 회복△재정 혁신△행정 혁신입니다. 먼저 절대평가 적용을 확대하고 학점포기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전임교원을 충원하고 교수 연구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복지 향상을 위해선 △김밥 메뉴 제도△입상당 인력 증원△장학금 확충△학생 식당 환경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직원 휴게공간 개선과 복지제도 강화를 통해 직원 복지 역시 향상하겠습니다. 나아가 5-MIX 전략으로 기부 활성화 등 재원을 다변화해 조성된 재원의 일부는 △복지△연구비△장학금에 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이버한국외대에서 운영 중인 AI 챗봇을 도입해 부서별 인력을 재배치하고 행정 효율을 높일 것입니다.

6. 캠퍼스별 독립경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의사결정 속도는 빨라질 수 있으나 학교 행정의 통합적 방향성을 수립하기 힘들고 운영 시스템이 분절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예상되는 우려 지점을 어떻게 조정해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다섯 가지 원칙을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캠퍼스의 △연구△인사△재정 규정△학사를 표준화한 통합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각 캠퍼스 △교수△직원△학생 대표와 본부가 함께하는 협의체에서 주요 사항을 심의해

캠퍼스 간 불균형을 막겠습니다. 셋째 캠퍼스별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해 성과에 따라 예산과 교원 정원을 각 캠퍼스에 차등 배정하겠습니다. 넷째 각 캠퍼스의 연구 및 교육 자원을 상호 개방하고 공용 행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재교육과 교원 교류 확대를 통해 각 캠퍼스의 행정 전문성과 교육 품질을 높일 것입니다.

7.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고도화해 학생들의 실용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구체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공약 실현 과정에서 학생들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 및 홍보 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하실 계획이신가요?

5단계 고도화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학습자 중심 설계△산업 및 현장 연계△융합 모듈 개발△해외 대학과 공동 인증 프로그램 마련△개인 맞춤형 학습 로드맵을 중심으로 실용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활용을 위해선 전용 모바일 앱을 개발해 △모듈 안내△장학 혜택△학습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8. 외국인 유학생의 성적을 평가 모수에 포함해 모든 학생들의 노력에 합당한 결과를 보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반발이나 우리학교 유학생 감소 우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학생의 성적을 평가 모수에 포함하되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적응 단계에선 △멘토링△상담△한국어 및 기초과목 지원 등을 통해 유학생들의 적응을 돕겠습니다. 과도기 단계에선 일부 강좌에 절대평가를 적용해 내국인 학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학생 비율 등을 고려해 상대평가 기준을 조정하겠습니다. 통합 단계에선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되 언어 문화적 배경에 따른 투명한 평가 기준 보정제를 도입해 유학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우수 유학생에 장학금과 기숙사 우선권을 부여하고 유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인턴십과 취업 연계를 제공하는 등 유학생 지원 역시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9. 마지막으로 유권자분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전 ‘말이 아닌 결과로 평가받는 총장’이 되겠습니다. 총장 취임 즉시 △교수△직원△학생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상설 운영해 정책 결정 전에 공론화를 거치고 예산 집행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교수에게 연구 몰입 환경△직원에게 보람 있는 일터△학생에게 풍부한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법인과 대학 간의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법인의 전폭적 지원과 대학 자율적 의사결정의 토대를 다지겠습니다.

윤교은 기자 10goeun@hufs.ac.kr



▲후보자 인터뷰 전문 보기

1. 총장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총장이 되기 위한 자질을 논하기 전 이번 총장 선거의 시대적 의미부터 짚어야 합니다. 첫째 이번 선거는 ‘소버린(Sovereign) Hufs’ 즉 주권적 대학의 방향을 세우며 학교법인과 구성원이 함께하는 거버넌스가 핵심입니다. 둘째 △글로벌서비스△충도를 잇는 ‘3캠퍼스 시대’를 열 리더를 선출해야 합니다. 셋째 구성원의 참여와 열정을 일깨워 △교육△연구△행정의 혁신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총장의 핵심 자질은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입니다. △교수△법인△직원△학생이 협력해야 하며 변화를 속도감 있게 실현하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핵심 공약 3가지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첫째 다국어 기반 AI 캠퍼스 전환(Hufs-AX)입니다. AI 튜터 및 어드바이저를 도입해 학과별 맞춤형 학습과 진로 로드맵을 제공하고 다국어 및 지역학 AI·데이터 허브를 구축해 융합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AI·데이터 기반 연구지원 체계와 행정 고도화를 통해 ‘페이퍼리스(Paperless) 학사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캠퍼스 대전환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은 ‘차 없는 그린캠퍼스’로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은 신도시권과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송도캠퍼스(이하 송도캠)은 신설 약학대학을 중심으로 산학협력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교육투자△연구지원△재정확보의 선순환 구축입니다. △문화답사 프로그램

개설△발전기금 600억 원 유치△어린이 외국어교육센터△외국인 전용 단과 대학 신설△태양광 발전사업△해외캠퍼스 설립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3. 총장이 된다면 만들어 가고 싶은 우리학교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이를 함축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을까요?

학교의 미래는 어떤 인재가 길러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그리는 인재상은 △베트남에 G마켓△브라질에 아놀자△태국에 쿠팡을 만드는 글로벌 디지털 프로젝트에서 활약하는 외대인입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핵심 키워드는 ‘연결’ 그리고 그 연결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으로 연결되는 캠퍼스’입니다. 저는 다국어와 지역학에 AI·데이터 역량을 결합해 사회 과학적 이해와 기술적 통찰이 융합된 대학으로 확장하고 세 캠퍼스의 긴밀한 연결로 시너지를 창출하겠습니다.

4.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우리학교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은 △다국어 및 지역학 데이터 리터러시△창업과 산학 및 글로벌 프로젝트 설계 능력△AI 활용 역량입니다. 이 역량을 키우기 위해 AI 교과목의 모듈화를 추진하고 △공공△산학△창업에서의 인턴십 트랙과 캡스톤-현장실습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AI 기업 업스테이지와 협력해 교육부 부트캠프에 공동 참여하고 지역학 특화 sLLM 구축을 위한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공동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창업의 융합전공화△창업 전담 정년트랙 교수제 도입△창업 총괄 지원 통합 조직 체계를 통해 우리학교 구성원 누구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5. 현재 우리학교가 처한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첫째 외부 대학 평가 대응을 위해 ‘미래혁신체’를 신설하고 중앙일보 15위와 QS400위 진입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또한 교수 연구력 강화를 위해 △강의시수 조정△상위 임팩트(Impact) 논문 인센티브 강화△연구년 주기 단축△융합 연구 성과 배점 상향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언어△지역학△AI·데이터 역량을 연결하는 학제 구조를 마련하고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교수진을 구성하겠습니다. 셋째 지출의 투명성과 수입 다각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 공약에서 말씀드렸던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직원 선생님들의 참여와 역량 보장을 위해 직원 처장 및 부처장 공모제를 통해 소통을 구조화 및 제도화하겠습니다.

6. 공약에서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하셨는데 현재 우리학교의 재정 운영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계획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첫째 학내 재정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재정 대시보드’ 구축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 체계를 마련해 신규 사업을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 평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재정혁신허브’를 설립해 △기부△엔도owment(Endowment)△투자형 운용을 통합하고 600억 원 모금 목표와 외부 자원 매칭 프로그램을 병행하겠습니다.

7. HK3.0 추진과 함께 교수 연구 인센티브 강화가 제시됐습니다. 해당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또 실제로 이행될 시 우리 학교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HK사업은 지난 2009년 시작 이후 다음 2028년까지 우리대학에 총 640억 원의 연구비를 유치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HK3.0 단계에선 지원 체계를 한층 더 체계화하겠습니다. HK 교수의 이중 소속제 도입과 연구소 대표 강의 지원을 통해 △교육△봉사△연구의 선순환을 만들 계획입니다. 5년 주기 연구년 제도를 시행하며 △공공△융합△장기 과제 시드펀드를 신설하고 ‘다국어 데이터 및 지역학+AI 융합센터’를 운영해 대형 연구과제와 국제공동연구의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신입 교원의 연구 집중 학기를 통해 강의 시간을 줄이고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학교의 연구 브랜딩을 강화하고 학부와 대학원 연계 연구 생태계를 활성화되길 기대할 수 있습니다.

8. 글캠 자연대와 공대 1층 공간을 활용하는 ‘로비 플레이그라운드(Playground)화’ 사업과 글로벌 센트럴 파크 조성 사업을 시행한다면 기존의 광역버스 및 주차장 공간은 어떻게 대체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사업을 △보행 중심△앵커 공간 조성△접근성 유지 원칙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광역버스 승차장은 운동장 아래 공터로 이전하고 운행 구간을 인문경상관까지 연장해 접근성을 높일 것입니다. 차량이 다니지 않는 보행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글로벌 센트럴 파크’를 조성해 학생들이 머물고 교류하는 캠퍼스의 중심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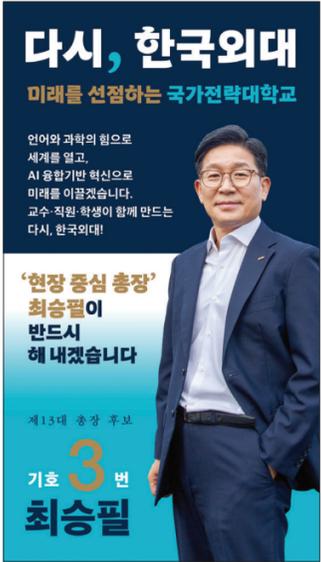
9. 마지막으로 유권자분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학교는 언제나 시대의 언어를 가장 먼저 배우고 가르쳐 왔으며 △지역학 △통번역△특수어를 개척해 언어로 세계를 연결해 온 위대한 전통을 가진 대학입니다. 이제 그 전통 위에 △그린캠퍼스의 설캠사람이 머무는 글캠△약대를 품은 송도캠△AI·데이터 역량의 새로운 앵커 공간을 더해 우리학교의 다음 10년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각 구성원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 내고 함께 성장하는 연결하는 리더십, 함께 여는 미래 를 완성하겠습니다.

송주원 기자 11juwon@hufs.ac.kr



우리학교를 이끌 제13대 총장, 그 주인공은?



▲후보자 인터뷰 전문 보기

1. 총장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총장은 갈등을 조정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조정자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에서 15년 동안 일하며 느낀 건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건 '공감'이란 점입니다. 공감이 바탕 되어 결정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정책도 오래갑니다. 전 '현장 지향적인 합의 리더십'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책상 앞에서 결정하는 총장이 아닌 직접 발로 뛰며 구성원과의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총장이 되겠습니다.

2. 핵심 공약 3가지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HUFSS FinHub' 즉 재정 저수지 구축입니다. 자연대와 공대의 기술을 사업화해 기술주회사를 만들어 수익을 △교육환경 개선△노후 건물 리모델링△장학금 확충에 재투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HUFSS Amazon AI Campus'입니다. 아마존 AWS(Amazon Web Services)와 협력한 AI 아카데미 과정을 정규 교과에 편성해 학생들이 국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교수님들은 AI 도구로 수업자료를 제작하거나 채점을 자동화하고 연구자들은 AI 어시스턴트와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미래 전략'과 '스텍(HUFS-Tech)' 설립입니다. △법학△사회과학△언어△지역학을 아우르는 연구소를 만들어 국가정책을 제안하는 싱크탱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공대△자연대△AI데이터융합학부 그리고 신설될 의생명과학

대를 묶어 칼텍과 같은 독립 브랜드를 도입하고 해외 대학과 공동연구 및 복수 학위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3. 총장이 된다면 만들어 가고 싶은 우리학교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이를 함축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학교의 미래는 '미래를 선점하는 국가전략대학교'입니다. 강점을 가진 언어와 지역학에 과학과 기술 특히 AI 역량을 결합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인재의 산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기술 역량을 입힌 '외대형 미래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 정체성을 유지하며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선발주자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우리학교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디지털 혁신 역량과 융복합 능력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AI 리터러시를 갖추는 게 핵심입니다. HUFSS-Amazon AI Campus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들의 디지털 역량을 높여줍니다. AWS 아카데미와 협력해 학생들에게 국제 인증을 제공하고 교수님들에게 AI 기반 수업자료 제작과 시험 자동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은 빅데이터와 AI 과목을 부담 없이 수강하고 이공계 학생들에게 우리학교의 여학 및 지역학 강점을 접목한 전략형 과목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마이크로디그리 제도와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해 학생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과목에 도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 현재 우리학교가 처한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재정과 소통입니다. 재정 문제는 △교원 총원 부족△시설 노후화△장학금 한계 등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HUFSS FinHub를 통해 근본적인 재정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단순 기부가 아닌 기술주회사와 콘텐츠 사업화를 통해 학교가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고 다시 교육에 투자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우리학교의 강점인 △통번역△한국어교육△환경 건설링 등의 역량을 기업화해 코스타 상장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총장실 직통 '열린 게시판'을 운영하고 정기 타운홀 미팅과 △교수△직원△학생이 함께하는 해커톤을 제도화하겠습니다. 토론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공식 의제로 등록하고 실행 로드맵을 공개해 제도로 연결하겠습니다.

6. HUFSS Global Network 미디어 사업(HUFSS-Channel)을 실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존의 외대교육방송국이나 영상사업단의 활동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이 이러한 컨셉을 가지

고 개인 채널을 운영할 수도 있는데 학생들이 홈채널에서 활동함으로써 차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구체적 이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HUFSS-Channel은 단순 방송 채널이 아닌 학교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각국의 △문화△사회△정치 콘텐츠를 제작해 해외 플랫폼과 연계하고 △광고△방송△영상 판매로 수익을 창출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콘텐츠 제작부터 △기획△수익화△홍보까지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HUFSS-Channel은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비즈니스로 발전할 수 있는 미디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가 될 것입니다.

7. △교수△직원△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해커톤과 타운홀 미팅을 제도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참여가 단순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기 위해 결과 반영 절차는 어떻게 설계하실 예정인가요?

의견이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소통이 아닙니다. 제안된 아이디어 중 공감대를 많이 얻은 사안을 총장 직속 의제로 채택하고 TF를 개설해 즉각 검토하겠습니다. 각 제안에 대한 실행 로드맵과 타임라인을 수립해 단기 검토와 중간 진행 상황을 웹사이트 열린 게시판에 공개하겠습니다. 나아가 실행 가능한 제안은 즉시 정책으로 채택해 예산 절차를 처리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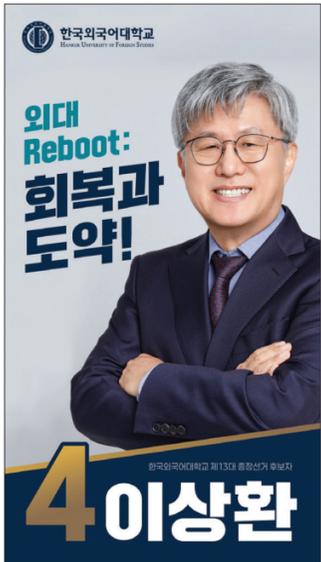
8. 인공지능과 언어 및 지역학 등의 융합은 우리 학교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이지만 교수진 확보나 교과 설계 등 현실적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신가요?

언어로 세계를 열고 AI와 과학으로 미래를 여는 것이 목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AI 및 데이터사이언스 전공 인력을 초빙교수 형태로 영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임교수 총원 계획을 세워 교과 과목을 확장하겠습니다. 정부 AI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교내에 AI-인문 융합교육센터를 신설해 교과 공동개발과 실습 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마존 AWS와 협력해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정비하고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에 AI 공동실습실과 데이터 사이언스 랩을 조성하겠습니다.

9. 마지막으로 유권자분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전 20년 넘게 법대 교수로 또 △기획조정처장△법학연구소장△홍보실장으로 지내며 학교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보았습니다. 언어와 지역학의 힘을 기반으로 국제협력과 AI를 결합한다면 '미래를 선점하는 대학'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구성원과 함께 울고 웃는 총장이 되겠습니다.

이나경 기자 10leenagyong@hufs.ac.kr



▲후보자 인터뷰 전문 보기

1. 총장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총장은 균형감과 추진력을 갖춘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내실△추진력△친화력이 조화를 이뤄야 진정한 리더십이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결단력 있는 실행과 구성원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학교가 더 큰 시스템을 갖춘 대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핵심 공약 3가지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첫째 재정과 인프라 혁신입니다.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R&D 수주를 연간 1천억 원까지 확대하고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와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공간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외대 Reboot' 기금을 조성해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둘째 학생과 교육 혁신입니다. 우리학교의 정체성을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d Science로 재정립하고 30억 원 규모의 학생 성장 기금을 조성해 취업과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교수와 연구 혁신입니다. 교수님들이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40억 원 규모의 연구 기금을 마련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R&D 사업지원단을 운영해 연구비 수주 경쟁력을 높여줍니다.

3. 총장이 된다면 만들어 가고 싶은 우리학교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이를 함축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을까요?

핵심 키워드는 '회복'과 '도약'입니다. 학생이 꿈을 실현하고 교직원이 자긍

심을 느끼며 교수님이 학문적 성취를 이루는 창의적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회복'은 학내 소통과 신뢰 회복 및 거버넌스 강화이며 '도약'은 이를 토대로 세계 속 명문 대학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육 혁신△안정된 학습 환경△연구 지원△행정 혁신으로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울타리를 구축하겠습니다.

4.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우리학교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필요한 역량은 '융복합 혁신 교육'과 'AI 기반 학습 환경 구축'입니다. 먼저 외국어와 지역학에 △첨단산업△AI△BIO를 결합한 'Foreign Studies Plus Science 모델'로 학제를 개편해 사회 수요형 융합 전공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AI 캠퍼스 10년 계획 추진을 통한 캠퍼스 간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다국어 AI 기반 학습 모델 도입을 통한 실무형 진로 지원 강화 및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기밀 맞춤형 인재 양성△해의 파견 프로그램 확대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KOICA와 KOTRA 등 정부 사업 유치(국제기구 및 다국적기업 연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줍니다.

5. 현재 우리학교가 처한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학교의 교명은 비어학 및 비지역학 전공들의 정체성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문 교명을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d Science로 변경해 교육 영역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R&D사업 수주 전담 조직을 설립하고 설캠엔 HUFSS Knowledge Hubs를 글캠엔 디지털 도서관과 퓨처 커리어 랩(Future Career Lab)을 조성해 교육환경을 혁신하겠습니다. 아울러 AI 캠퍼스 10년 대계를 추진해 △AI△AR△VR 도구를 개발하고 IT 인력 확충 및 해외 대학과의 온라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어 인증제와 AI 기반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융합 중심 정원 조정을 시행하겠습니다.

6. 공약에서 '정부재정지원사업 및 R&D사업 수주 연 1,000억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분야나 네트워크를 통해 이 목표를 실현하실 계획이신가요?

정부 부처 정책 자문과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업△대학혁신사업△RISE사업△BK21 등 주요 사업의 성과를 높여줍니다. 정부재정지원사업 지원센터와 R&D사업지원단을 신설해 사업 발굴과 관리를 체계화하겠습니다. 또한 AI 캠퍼스 조성과 비정형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반도체△AI△BIO 등 국가전략기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제안서 컨설팅△특허 자문 등을 제공해 연구자의 부담을 줄이고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해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하겠습니다. 나아가 △기술이전△창업 연계△특허 출원을 통해 대학 재정 자립을 실현하겠습니다.

7. 교수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거 '전국 최고 수준이었던 연구지원 제도'를 복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학교의 연구지원이 어떤 점에서 경쟁력을 잃었다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우선적으로 복원하거나 개편할 계획이신가요?

연구지원 약화로 교수님들의 연구 의욕이 저하되고 외부 변화 대응이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연구실험협력단장으로 재임할 당시 △별도 1편과 2편 신설△연구비 인센티브 상한 개선△연 3회 해외 학술회의 항공료 및 체재비 전액 지원△SCI 논문 지원 확대 등으로 인문사회 연구 성과가 전국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 '기본 및 별도 1+2 유지'와 해외 학술회의 참가 지원을 복원해 연구 의욕과 성과를 높이겠습니다. 임용 3년 이내 신입 교수에게 연구집중학기 1회와 이공계 연구조교 1인을 지원해 초기 연구 정착을 돕고 우수 인재를 확보하겠습니다.

8. 전문직 시험(△법전문 입시△언론△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행정고시△회계사 등)의 획기적 지원 강화를 공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험의 구체적인 비용 지원 계획과 어떤 기준으로 시험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외무고시만 지도교수로서 공직 인재 양성을 지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시험 준비생들의 필요와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시 합격을 위한 지원의 3박자는 우선 교과과정의 고시 과목화로 대학 졸업을 위한 학점 취득과 고시 준비의 괴리를 최소화해야 하고 기숙사 제공이 요망되며 고시연구실 공간을 최대한 제공해야 합니다. 예산 증액은 특강과 인강 그리고 모의시험 강령 등에 주로 사용해야 하고 예산의 획기적 증액분은 고시반 성격과 성과 및 실월 수에 맞게 차등 지급이 요망됩니다. 아울러 자격증과 언어시험 학습 지원금을 제공해 학습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문직 시험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9. 마지막으로 유권자분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학교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총장은 단순히 학교를 운영하는 자리가 아닌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자리입니다. 학문적 전문성과 행정 경험 그리고 대외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저는 학자로서 연구와 교육에 헌신해왔고 여러 정부 사업 및 평가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험과 지적 자산을 쌓았습니다. 우리학교의 현안을 해결하려면 감성이 아닌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전 그 역할을 맡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학교가 다시 신뢰받고 구성원이 자부심을 느끼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이나경 기자 10leenagyong@hufs.ac.kr



우리학교를 이끌 제13대 총장, 그 주인공은?



▲후보자 인터뷰 전문 보기

1. 총장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전 모든 구성원과 세밀하게 소통하고 의견을 경청하며 의사 결정을 이뤄 가는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우리학교의 자칫 소외될 수 있는 구성원분들과도 다 함께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학교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 핵심 공약 3가지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학교가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는 K-컬처 콘텐츠 영역이라고 봅니다. 한국어와 외국어를 문화콘텐츠란 매개로 연결하는 브릿지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한 송도캠퍼스의 안착을 두 번째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 번째 공약인 '재정의 건전화'란 것은 '적극 재정'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것을 'RAINBOW PROJECT'로 이름 붙였습니다. 'R'은 Rebalance로 기존 예산의 효율적 분배를 뜻합니다. 'A'는 'Accumulation' 전략적인 적립입니다. 'I'는 'Invest'로 과감한 투자입니다. 'N'은 'Network'이며 국내·국제적으로 다양한 연결망들의 확장 및 예산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림을 뜻합니다. 'B'는 'Brand'로 특히 기부금에 브랜딩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O'는 'Open platform' 전략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개방형 플랫폼 사업을 통한 수익 구조화를 뜻하며 'W'는 수익을 현실화해 우리의 재정이 'Win'하는 방향으로 나가자란 의미입니다.

3. 총장이 된다면 만들어 가고 싶은 우리학교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전 모든 구성원과 세밀하게 소통하고 의견을 경청하며 의사 결정을 이뤄 가는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우리학교의 자칫 소외될 수 있는 구성원분들과도 다 함께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학교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함축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을까요?

전 '날아라 우리 외대, HUFSthe Great'란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학교의 정체성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란 점과 우리학교의 침체된 분위기를 회복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비전을 설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The Great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G'는 'Glocal'로 인재상입니다. R은 'Resilient'로 회복 탄력성을 갖출 수 있는 학교입니다. 'E'는 'Effective'로 효율적인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A'는 Autonomous로 자율성입니다. 'T'는 'Technological HUFSthe Great'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디지털 전환 후 인공지능 전환으로의 방향성 모색을 의미합니다.

4.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우리학교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전환을 단계별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우리 학교 내에서 자족적인 'Small Language Model GPT'를 구축해 초기부터 고도화하는 과정까지의 Large Language Model GPT 구축 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엔 이를 통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의 '멀티모달' 세계 시민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구 지원 시스템으로 '외대 발전 연구원'을 세우고자 합니다. 연구 데이터 세트의 구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의 측면에서도 ERP 시스템을 통해서 웹 기반의 디지털 업무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이며 궁극적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업무 경감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5. 현재 우리학교가 처한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모든 대학이 처해 있는 첫 번째 위기는 학생 인구의 감소입니다. 이것은 우리학교의 지속 가능성 위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에 대학은 이제 사회적 책임으로써 종적·횡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종적인 책임은 평생 교육 체제로의 확대로 송도캠퍼스에 평생교육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횡적으로 국제 학생들을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우리 학교는 공학과 기술 영역에서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강점을 강화해 나가며 이를 새로운 영역들과 결합하는 융합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상대평가 제도를 강의별로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해당 공약이 실현됐을 때의 기대효과와 예상 가능한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기대 효과는 우리의 학습의 자율성을 증진할 수 있던 점입니다. 대학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율입니다. 평가 방법의 설정을 어느 하나의 방향으로 묶어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단 생각이 듭니다. 학점 인플레이션이 생긴다고 염려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 자체가 상대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학점은 교수가 학생들한테 부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고 권한이며 자율권에 대한 존중입니다.

7. RAINBOW Financial Project를 통해 연간 예산 4,430억 원 달

김주연 기자 11juyeon@hufs.ac.kr



▲후보자 인터뷰 전문 보기

1. 총장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21세기 대학 총장은 △학문적 전문성△미래 비전△행정 역량△공감 능력 등 두루 갖춘 리더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학문 분야에서 스타워십을 인정 받는 학자여야 하고 △변화를 설계할 수 있는 경영자△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가여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학문적 성취나 행정 경험만으로 부족하기에 구성원을 존중하는 공감력과 변화의 방향을 읽는 통찰력이 함께해야 합니다.

2. 핵심 공약 3가지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AI 캠퍼스 구축입니다. 네이버와 협력해 △교육△산학협력△연구·인프라 전반에 AI를 체계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AI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화하고 전공과 AI를 융합한 교육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네이버 및 LG CNS와 협력해 계약학과와 산학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현장 중심 AI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QS평가 국내 대학 TOP10 진입입니다. 데이터 기반 평가지표 분석과 전략적 지원 체계를 통해 우리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드시 국내 순위 10 위권에 진입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정 규모 3,000억+ 달성입니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200억 원 이상 확대하고 △K-MED@HUFSthe Great 의료서비스△온라인 K-콘텐츠 교육△태양광 발전시설 임대 전입금 확대 등으로 수익원을 다변화하겠습니다.

3. 총장이 된다면 만들어 가고 싶은 우리학교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이를 함축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을까요?

첫 번째 AI 휴머니즘입니다. 기술보다 인간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도 인문학의 가치와 윤리를 지켜줍니다. 두 번째 융합입니다. △외국어△지역학△AI·데이터사이언스를 결합해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형 글로벌 인재를 양성합니다. 세 번째 퍼스트 무버 정신의 계승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선도해 온 우리학교의 전통을 AI 시대에 맞게 새롭게 창조합니다. 네 번째 글로벌 싱크탱크 대학입니다. △외교△통상△개발△문화△안보△환경△기술윤리 등 세계적 의제에 기여하는 국제 연구 거점을 구축합니다. 다섯 번째 지속가능성입니다. 재정 3,000억+ 달성과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로 미래 우리학교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4.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우리학교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만의 문제가 아닌 인문학적 사고와 디지털 리터러시의 융합이 핵심입니다. 우리학교는 이미 △언어△문화△지역학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 분석력△AI 활용 능력△글로벌 감각을 결합하면 세계가 찾는 융합형 인재를 길러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 'AI 캠퍼스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전교생에게 AI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화하고 산업계 연계 계약학과와 인턴십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클라우드와 데이터 구축을 지원해 연구 활용을 확대하고 네이버와 공동 연구센터를 설립해 차세대 AI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AI 행정 시스템으로 다국어 스마트캠퍼스를 구현해 기술과 인문이 공존하는 대학으로 발전시켜겠습니다.

5. 현재 우리학교가 처한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학교는 학문적 정체성은 강하지만 실행력과 재정 체질이 약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AI·데이터 기반 실행형 패키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네이버와 함께 AI 캠퍼스를 구축하고 LG CNS와 계약학과를 신설해 산학협력을 한 단계 높여겠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장학-멘토-인턴-채용을 묶은 '브랜드 장학금' 100개 이상을 유치하겠습니다. 외교·통상과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두 개의 글로벌 싱크탱크를 운영해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의무 담임 제도를 포함한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 3,000억+ 달성을 지속 가능한 대학을 실현하겠습니다.

6. 임기 중 재정 규모 3,000억 달성을 공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궁금합니다.

재정 3,000억+ 달성은 단순한 숫자의 약속이 아닌 우리학교의 경쟁력과 미래를 지키는 구조 개혁입니다. 이를 위해 등록금과 정부 재정지원에 편중된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수익원 다변화와 재정 체질 개선을 중심으로 재정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200억 원 이상 확대해 안정적 재

성을 목표로 제시하셨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수치인데 재원 조달의 핵심 동력으로 어떤 사업을 보고 계신가요?

제가 4,430억으로 제시한 것은 4년 뒤의 수치입니다. △기부금△송도 캠퍼스 예산△연구비△자연 증가분△정부 지원에 더해 플랫폼 중심 사업을 연간 220억 정도로 생각해 계산했을 때 4,430억 원이 나옵니다. 연간 약 300억 정도씩의 증가를 유도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어 교육 플랫폼입니다. 저는 다양한 국가에 현지캠퍼스를 만들고 전 세계 어디서나 접속해 언어 시험의 모의고사를 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수익화하는 구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HUFSthe Great TV를 만들고자 합니다. 콘텐츠는 학교 구성원 누구나 만들 수 있으며 좋은 콘텐츠의 경우 제작비를 지원하고 대신 그것을 HUFSthe Great TV 플랫폼에 올려 수익을 재분배하는 겁니다. HUFSthe Great Report 플랫폼은 국제 정세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역량을 가진 우리학교 교수들이 주축이 될 것입니다. 플랫폼을 만들어 교수에게 편당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이를 플랫폼에 올려 △기판△단체△외부 기업에서 원하면 일정 금액을 받고 제공하는 겁니다.

8. '용인 영화·드라마 촬영소' 공약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만약 해당 공약이 실현될 경우 외부인 유입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및 통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현재 글로벌캠퍼스의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화·드라마 촬영소를 제시했습니다. 영화 드라마 촬영소는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또한 용인시에 새로운 명소가 생긴다는 장점을 앞세워 용인시 및 경기도와 협업할 수 있도록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영화·드라마 촬영소는 우리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됨과 동시에 희소성이란 장점을 토대로 수익 사업을 구조화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육△대관△수익△지역 사회에 좋은 플랫폼 사업을 하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외부 인원이 유입되는 경우 학생들을 향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에 꼭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 마지막으로 유권자분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학교는 충분히 앞으로 날아올 수 있는 동력과 자원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따뜻한 소통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이뤄나가는 미래의 4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7. 공약으로 "LG CNS 계약학과 신설 추진"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교원 부족 문제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외국학 역량을 가진 우리학교와 DX 전문 기업 LG CNS의 협력으로 큰 시너지가 예상됩니다. LG CNS가 글로벌 DX 비즈니스를 확장하며 진출 지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이를 양성할 수 있는 최적의 대학이 바로 우리학교란 설명이 있었습니다. 임기 첫 해 학칙 개정과 인가를 추진해 오는 2027학년도 계약학과 신입생을 모집하겠습니다. 내국인 50명과 외국인 학생을 선발해 입학부터 채용까지 이어지는 통합 트랙을 구축하고 LG CNS 실무진을 포함해서 계약학과와 지원으로 전임 교원을 확보해 현장 중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계약학과는 해당 학과 학생뿐 아니라 우리학교 전체 학생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8. 글로벌캠퍼스 교통 편의성 확보를 위해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내에 외대입구역 유치를 공약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글로벌캠퍼스의 교통 문제는 대학의 성장과 학생 만족도를 저해하는 구조적 과제입니다. 이를 해결할 핵심 해법이 바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GTX-C) 외대입구역' 유치입니다. 총장 취임 즉시 '외대입구역 유치 TF'를 구성해 △중 앙정부△경기도△용인시△정지권과의 협력체계를 전면 가동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 마지막으로 유권자분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학교의 전통은 언어지만 이제 AI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고 데이터를 언어처럼 다룰 수 있는 총장이 필요합니다. 전 소통의 근거가 되는 통째로 언어를 전공한 학자로서 데이터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실행으로 결과를 만들어 온 사람입니다. 언어의 대학에 과학의 추진력을 더해겠습니다. 이제는 구호가 아닌 도약을 위한 실행으로 대학의 길을 열어갈 때입니다.

임재연 기자 11jaeeon@hufs.ac.kr



우리학교를 이끌 제13대 총장, 그 주인공은?



▲후보자 인터뷰 전문 보기

1. 총장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총장은 선각자(Visionary Man)로서 공동체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위기를 정확히 인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학교의 핵심 위기인 정체성을 잃은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및 분리된 캠퍼스(Separate Campus) 구조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통찰력이 총장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 생각합니다.

2. 핵심 공약 3가지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3대 핵심 공약은 창학정신에 기초한 △진리△평화△창조입니다. 진리는 외국어를 중심으로 한 진리 탐구의 회복입니다. 주요 외국어가 부재한 글캠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학생들이 양 캠퍼스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멀티캠퍼스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또 우리학교만의 독보적인 특성을 살려 연구소 중심의 연구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평화는 공동체 구성원의 화합을 위한 복지입니다. 매년 교수 임금 5% 인상을 추진하고 교직원 6개월 연속 시 한 달 유급 휴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글캠 스마트 도서관을 증축하고 'Hufs 피트니스 센터'를 설치해 복지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창조는 국제화를 위한 인력 및 재정 확충입니다. 양 캠퍼스에 독립적인 국제 교류처를 설치해 맞춤형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전공 필수 과목

중 하나를 영어나 원어로 수강하도록 하며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소액 기부 문화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3. 총장이 된다면 만들어 가고 싶은 우리학교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이를 함축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을까요?

핵심 키워드는 멀티캠퍼스입니다. 한 학생이 두 캠퍼스를 자유롭게 오가며 배우는 구조를 구축해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와 글캠이 분리된 체제를 하나의 유기적 생태계로 바꾸고자 합니다. 셔틀버스를 하루 7회 운행하고 교수들에게 'WeWork' 수준의 연구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캠퍼스 구분 없이 △수업△스마트 도서관△피트니스 센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제가 꿈꾸는 우리학교의 미래입니다.

4.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우리학교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학교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선도적 연구와 개발을 시도하기보다 기존 AI 기술의 효율적 활용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미 교수학습개발원에서도 AI 강의 활용법을 연구하고 있고 저를 포함한 많은 교수님들이 수업에 AI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학교가 외대다움 때 대기업도 우리의 자산을 원할 것입니다.

5. 현재 우리학교가 처한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장 큰 위기는 정체성의 흔들림입니다. 특히 글캠의 외국어 교육 부재가 문제입니다. 형(形)이 갖춰져야 세(勢)를 이룰 수 있으나 현재 우리학교는 형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캠퍼스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학교 구성원 모두가 이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할 때입니다.

6. AI 시대에 부합하는 '외대형 인재상'을 정립하기 위해 인문학 기반 교양 필수를 이수하도록 하겠다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미 우리학교는 필수 교양으로 미네르바 인문 강좌가 존재하는데 해당 수업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또한 해당 공약이 어떠한 효용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 AI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첫째로 양 캠퍼스에 분산된 AI 관련 전공을 규합할 연구소 설립이 시급합니다. 필요하다면 특임교수를 초빙하고 교수들이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둘째는 교육입니다. AI와 관련된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학교의 특성을 살려 인문 교양인 △역사△철학△사회△경제△한문 네 과목 중 두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미래를 읽고 대응하는 사유와 사회진출을 위한 실질적 역량을 갖춘 '외대 인재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미 미네르바 등 여러 기초 교양이 잘 조성돼 있지만 이 교양들이 제가 언급한 네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7. 우리학교의 인재상 재정립을 위한 방안으로 기부 문화 정착과 학교 이미지 홍보를 제시하셨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우리학교는 인문학 중심 대학으로 재정 수입원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형과 세가 갖춰져 '외대다움'을 이룰 때 자연스럽게 기부 문화가 조성될 것입니다. 정기적 기부 행사와 함께 소액 기부 채널을 만들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겠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를 논의 중인 휴대폰으로 만 원을 쉽게 기부할 수 있는 채널과 연계해 기부 문화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거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광고판에 걸렸던 'Come to Hufs, Meet the world!' 광고처럼 학교 이미지 홍보를 통해 자긍심을 높이고 이를 기부 문화 확산으로 연결하겠습니다.

8. 공약에서 '글로벌캠퍼스 스마트 도서관 증축 추진'을 약속하셨는데, 구체적으로 180억 중 125억의 기부약정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셨는데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과 실제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기부 약정자본들을 찾아내고 설득해야 합니다. 약정된 금액이 아직 현실화되지 못했더라도 그분들은 학교에 대한 애교심이 있는 잠재적 기부자이기에 그에 맞는 예우를 다하며 기부를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글캠 스마트 도서관과 함께 Hufs 피트니스 센터 설치를 위한 기부금을 마련하기 위해 홍보처와 함께 여러 전략을 짜고 기부금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형과 세를 갖추면 기부는 자연히 따를 것입니다.

9. 마지막으로 유권자분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학교와 관련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Unique and Best'이며 이는 우리학교를 상징하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우린 자긍심과 자부심을 잃고 타 학교와의 비교를 시작해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학교만의 교육과 연관된 정체성 회복과 인재상이 필요합니다. 전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멀티캠퍼스를 주장합니다. 양 캠퍼스의 자원과 인프라를 잘 활용해 학생들이 언제든 원하는 외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학습권이 확보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학교의 정체성이 유지되며 'Unique and Best'가 실현되는 학교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채린 기자 11chaelin@hufs.ac.kr



▲후보자 인터뷰 전문 보기

1. 총장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자질이 중요합니다. 우리학교에 현재 필요한 리더십은 한 사람의 카리스마가 아닌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원의 뜻을 모아 방향을 이끄는 사람이 총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통합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핵심 공약 3가지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재정 자립입니다. 근본적으로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려면 교육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입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글로벌 K-교육원 모델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 혁신입니다. 우리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교육 혁신이 필요하고 그 핵심이 바로 미래 캠퍼스입니다. 이것은 가상의 캠퍼스를 구축해 온오프 중심의 온라인 강좌를 만들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 하이브리드 수업으로 확장하는 모델입니다.

세 번째는 신뢰 회복입니다. 구성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이 있으나 전 제도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교직원△학생들의 요구도 단순 소통에 그치지 않고 제도로 만들어야 지속적인 신뢰가 형성됩니다.

3. 총장이 된다면 만들어 가고 싶은 우리학교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이를 함축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을까요?

제 핵심 키워드는 글로벌 교육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학교를 공동체로 확산시키고 지식을 넘어 사람과 세계를 연결하는 교육 공동체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대학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축적하는 것만이 아닌 지식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고 사회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서로 쌍방향으로 배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기에 대학을 교육하는 공간을 넘어 서로 △성장△소통△연결하는 글로벌 교육 공동체로 만들고 싶습니다.

4.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우리학교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연결과 융합으로 보며 이러한 구조로 우리학교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역량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디지털 리더십입니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빅데이터△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둘째는 융합적 사고입니다. 우리학교의 외국어 및 지역학 강점을 기반으로 과학기술과 결합할 수 있는 혼합형 역량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글로벌 실천 역량입니다. 우리학교의 국제성을 살려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5. 현재 우리학교가 처한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크게 구조적 및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학교의 높은 등록금 의존도입니다. 이 부분에선 학교 법인의 재정 구조 취약성으로 인해 장기적인 발전 계획 수립이 힘든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과 연구 사이의 연계 과정 부족입니다. 세 번째는 대학 평가 순위 하락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 혁신으로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헬스케어 센터와 K-교육원을 통해 수입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또 현장 중심 실습과 글로벌 창업 및 현장 학점제로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장 직속 대학평가위원회를 신설해 대학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일 것입니다.

6. '글로벌 헬스케어 교육 클러스터' 사업의 구체적인 기대효과와 실행 가능성 및 현실적 실현 방안이 궁금합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교육 클러스터 사업을 단계적으로 이어나가겠다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선 허가 받기 쉬운 건강검진센터를 설립해 경기도권 다문화 가정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론 해

외 외국인도 적극적으로 유치해 단순한 건강검진을 넘어 명상 및 요가 등 웰니스 프로그램을 결합한 형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새로운 수익 구조를 창출하는 모델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속적으로 수입원을 창출하고 적절한 시점에 맞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학교에 장기적인 발전 전략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7. 학생 중심의 학사 제도 개편 공약 중 'S/U 제도'나 학점 지우개 제도의 도입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우선 경쟁이란 부분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학생 간 경쟁을 완화하며 학업의 본질적 가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S/U제도와 학점 지우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본인이 성적을 등급과 P/F 중 무엇으로 받을지 선택함으로써 학습의 초점을 성적에서 배움으로 바꾸는 역할인 것입니다. 이는 실패를 용인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른바 실패 부활권을 부여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S/U 제도 및 학점 지우개 제도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취업시장에서의 불리함을 덜어주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8. 캠퍼스별 차별화 전략을 제시하셨는데 △글로벌캠퍼스△서울캠퍼스△송도캠퍼스의 역할 분담을 통해 어떤 구체적인 균형 발전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서울캠퍼스는 어문학 강점을 살려 전통적 정체성을 확장하고 글로벌 K-교육원을 통해 한국학의 허브로 키우고 싶습니다. 글로벌캠퍼스는 이공계 중심이기에 별도 발전전략기획처를 만들어 특성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도캠퍼스는 산학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헬스와 연계한 융합 클러스터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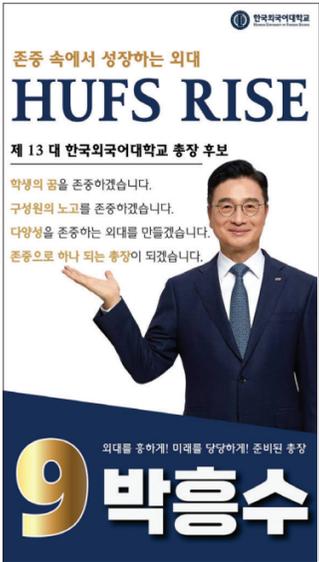
9. 마지막으로 유권자분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번 총장 선거는 단순히 차기 총장을 뽑는 선거가 아닌 우리학교의 총장 직선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학교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갈지가 걸려 있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전 이번 선거를 통해 총장 직선제를 반드시 지키고 우리학교의 정체성을 확장하고 싶습니다.

임재연 기자 11jaeeon@hufs.ac.kr



우리학교를 이끌 제13대 총장, 그 주인공은?



▲후보자 인터뷰 전문 보기

1. 총장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존중과 실행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중은 소통의 출발점이며 △교수△직원△학생 각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아우르는 포용적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또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재정난△학령인구 감소 속에서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선 실행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계획과 확고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구성원이 신뢰할 수 있는 총장 그리고 존중 속에서 성장하고 혁신이 일상이 되는 우리학교를 만들겠습니다.

2. 핵심 공약 3가지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첫째 재정 혁신입니다. △고부가가치 학위과정을 통한 4년간 558억 원 이상의 재원 확보△기업·정부·지자체 프로젝트 수주 확대△발전기금 모금△재단 전입금 확충으로 지속가능한 재정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교육 혁신입니다. AI·데이터 융합 교육을 중심으로 학생 맞춤형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고 언어별 AI·데이터 융합 과정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문화와 기술 융합입니다. 버클리음대(이하 버클리음대)와 협력해 융합 교육을 실현하고 교과과수익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3. 총장이 된다면 만들어 가고 싶은 우리학교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이를 함축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을까요?

제가 꿈꾸는 우리학교는 '존중 속에 성장하는 대학'이며 이를 함축하는 비전은 'HUFS RISE'입니다. Respect: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소통하는 신뢰의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Innovation: AI·데이터 융합 교육과 스마트 행정 체계를 구축해 우리학교를 디지털 혁신 대학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Sustainability: 고부가가치 사업을 통해 재정 자립 기반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겠습니다. Excellence: 세계적 수준의 교육 경쟁력을 확보해 우리학교를 글로벌 명문 대학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4.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우리학교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융합 역량△AI가 대학 경쟁력의 핵심이며 이를 위해 'AI·Digital 혁신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구성원에게 글로벌 AI 학습 콘텐츠(△ChatGPT△Duolingo△Gemini 등) 이용권을 제공하고 교수진에게 AI 기반 수업 설계와 데이터 활용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45개 언어 및 전공별 AI·데이터 융합 교과과정을 개설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AI 학습 플랫폼을 구축해 진로와 역량에 따른 학습 로드맵을 자동으로 설계하고 메타버스 및 가상현실 기반 수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산학 협력을 강화해 학생들이 실제 데이터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 현재 우리학교가 처한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학교는 △구성원 간 소통 부족△재정의 제약△행정 비효율이란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혁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재정 혁신입니다.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재정 다변화를 이루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유치해 안정적 재원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둘째 행정 혁신입니다. ERP 기반의 통합 행정시스템과 AI 자동 보고 체계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셋째 소통과 신뢰의 혁신입니다. '열린 총장실' 운영과 정례 간담회를 통해 참여형 거버넌스를 실현하겠습니다.

6. 재정 혁신의 핵심 수단으로 유학생 유치 확대를 제시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이에 따른 수요 확충 방안이 궁금합니다.

유학생 수를 오는 2029년까지 8,2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학생 전용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다국어 강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버클리음대 공동학위 과정 및 실용음악 캠프 운영△중국 및 아시아국가 MBA△Doctoral Program for Chinese Professors 등 고부가가치 특화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학생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유학생 전용 기숙사

신축 또는 인근 건물 확보△유학생총괄지원센터 부총장 직속으로 확대 개편 △유학생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 및 생활·심리·학사상담 통합 지원 등을 통해 유학생의 학업과 생활의 만족도 또한 높일 예정입니다.

7. 'AI 기반 학습 플랫폼' 구축 계획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무엇인가요?

AI 기반 학습 플랫폼은 학생 개인의 △관심 분야△진로 목표△학점 이수 현황을 바탕으로 교과 및 비교과 과정을 자동 추천하는 맞춤형 학습 설계 시스템입니다. 해당 플랫폼은 △이수 현황△졸업 요건△학점을 시각화하고 진로별 커리큘럼을 자동 설계합니다. 교수는 데이터를 활용해 각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진단하고 AI 기반 학습 진단 및 코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은 HUFS DATA 시스템과 통합해 언어별 AI·DATA 융합 교육과정과 연계됩니다.

8. 버클리음대와 협력은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나요?

버클리음대와 협력은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취업 기회 확대와 재정적 혜택 강화된 두 가지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학생들은 국제 음악 및 문화 산업으로 진출할 통로를 얻고 버클리음대의 네트워크를 통해 음악과 산업의 융합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버클리음대의 실습 중심 교육을 우리학교에서 경험하며 글로벌 산업 수준의 실무 능력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둘째 버클리 아시아 허브 운영은 우리학교의 지속가능한 재정 구조 확립에 기여하며 유학생 유치 수익을 장학금과 학생 복지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버클리음대의 산학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외 인턴십과 교환 연수 기회 등이 확대될 것입니다.

9. 마지막으로 유권자분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학교 가족 여러분 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우리학교의 새로운 100년을 열겠습니다. 재정 혁신으로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교육과 행정의 디지털 혁신으로 경쟁력을 갖추겠습니다. 또한 모두가 존중받고 서로의 다름이 힘이 되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외대를 흥하게, 미래를 담당하게!"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김민서 기자 09kimminseo@hufs.ac.kr

미래의 언론인, 112기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2025.11.18(화)~11.27(목)
- 모집대상: 양 캠퍼스 3학기 활동 가능한 재학생 (교육 기간: 02.09-02.27(3주))
- 지원방법: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및 에브리타임 확인
- 면접일정: 11.29(토), 11.30(일) 중 (11.28(금)에 개별 안내 예정)
- 입기: 26-1학기~27-1학기
- 활동혜택: 언론 장학금 및 활동비 지급
취재 교육
자기 이름의 신문 기사 발행
명함 제공
좋은 사람들과 소중한 추억
- 문의: 이승원 편집장 (010-9505-1588)

국제지역 전문가 양성의 요람 국제지역대학원 2026학년도 전기 모집

1. 국제지역대학원 모집

◎ 석사학위과정 / 박사학위과정 / 석·박사 통합학위과정 모집 전형 일정

구분	1차 모집	2차 모집
온라인 원서작성	원서작성: 2025. 9. 30.(화) ~ 10. 14.(화)	원서작성: 2025. 11. 11.(화) ~ 11. 20.(목)
면접 전형일	2025. 11. 1.(토)	2025. 12. 6.(토)
입학설명회	2025. 11. 7.(금) 예정 (Webex를 통한 온라인 입학설명회) 변동 가능	

* 온라인 접수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 온라인 입학설명회 세부 안내는 추후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단,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특징

- 가. 다양한 장학금 제도
- 나. 유엔평화대학 이증취 프로그램 운영(국제학, 한국학, 중남미학, 유럽연합학)과 다. 3+1제도 시행(산발자에 한하여 재학 중 1학기는 해외에서 학점취득)
- 라. 폭넓은 다양한 지역학, 국제학 과목 개설
- 마. 졸업 후 많은 동문들이 국제기구, 공공기관 국제협력실, 대사관, 국제 연구기관 등에서 국제지역 전문가로 활약 중

◎ 문의처: 02)2173-2448, 2449, 2434 / Email: hufsgsias@hufs.ac.kr

-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s://gsias.hufs.ac.kr>

2.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모집

◎ 모집: 석사학위과정(4학기)

학 과 (전 공)	학 위
국제지역전략학과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국제지역학석사, 경제학석사

◎ 모집일정

구분	1차 모집	2차 모집
온라인 원서작성	원서작성: 2025. 9. 30.(화) ~ 10. 14.(화)	원서작성: 2025. 11. 11.(화) ~ 11. 20.(목)
면접 전형일	2025. 11. 1.(토)	2025. 12. 6.(토)
입학설명회	2025. 11. 7.(금) 예정 (Webex를 통한 온라인 입학설명회) 변동 가능	

* 온라인 접수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 특징

- 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출신 교수진 초빙
- 나. KOTRA의 통상전략 및 지역통상 현안 분석을 기반으로 국제지역대학원의 고유가치인 지역학 전문
- 다. 통상환경 + 실무이론 + 지역별 심화 연구를 아우르는 실무 통상 전략가 양성을 목표로(커리큘럼 방향은 추후 변경 가능)
- 라. 졸업 시 학위기와 함께, 별도로 KOTRA 사장 명의의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수료증 수여
- 마. KOTRA 현지 무역관 연계 단기 현장학습 추진
- 바. GBC(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턴트, 민간 1급) 자격증 연계

◎ 문의처: 02)2173-2448, 2449, 2434

Email: hufsgsias@hufs.ac.kr

-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s://gsias.hufs.ac.kr>



15초 즐거움의 역습 숏폼, 중독 사회를 병들게 하다

△릴스(Reels)△쇼츠(Shorts)△틱톡(TikTok) 등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인 이른바 '숏폼(Short-Form)'의 이용률이 폭발적으로 확산 중이다. 숏폼은 정보화 시대에 빠르고 간편하게 유행을 습득하고 지식을 얻는단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무분별한 시청이 이용자들의 집중력과

문해력을 저하시킨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숏폼 이용 실태와 사회적 인식△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숏폼 이용 실태와 사회적 인식

△식사시간△이동시간△잠자기 전 등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숏폼 영상을 시청한다. 15초에서 1분 남짓한 시간 동안 현란한 시각 효과와 자극적인 배경 음악이 쉴 새 없이 쏟아진다. 이러한 숏폼의 확산세는 Z세대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실제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Z세대 10명 중 9명(91.9%)이 하루 평균 약 2시간을 숏폼 시청에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매일 2시간 정도의 영화 한 편을 시청하는 것과 맞먹는 시간을 숏폼에 할애하는 셈이다. 실제로 베이지(중국·중언문 24) 씨는 "하루 평균 3시간은 숏폼을 시청하는 것 같다"며 "특히 잠자기 전 1시간씩은 습관처럼 본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학교 재학생 A 씨는 "시간을 세어본 적은 없지만 생각 없이 계속 내리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2~3시간은 보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러한 현상은 청년 세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와이즈앱(Wiseapp)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3대 숏폼(△릴스△쇼츠△틱톡)의 1인당 월평균 사용 시간은 약 46시간 29분으로 주요 6개 정기 구독(OTT) 서비스의 다섯 배에 달한다. 트레버 헤인즈(Trevor Haynes) 하버드 의과대학 신경생물학 연구기술자의 글인 '도파민, 스마트폰 그리고 당신: 당신의 시간을 놓고 벌어지는 전쟁'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이용자의 시간을 점유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플랫폼의 정교한 설계가 빚어낸 결과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숏폼 영상은 단순한 짧은 재미의 영역을 넘어 사용자들의 뇌 신경계에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그들의 일상과 소비 패턴을 적극적으로 바꾸고 있다. 첫째 뇌의 보상 회로에 대한 즉각적인 자극이다. 숏폼이 유발하는 인지 능력 저하의 초기 기제는 뇌의 도파민 시스템에 대한 고도의 자극이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인스타그램(Instagram)△페이스북(Facebook)△틱톡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슬롯머신(Slot Machine)과 동일한 심리 메커니즘을 활용한다. 사용자가 화면을 내릴 때마다 다음 영상에서 무엇을 볼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있기에 뇌는 강력한 도파민 방출을 경험한다. 좋아요나 댓글 같은 보상이 예측 불가능하게 제공될수록 뇌는 더욱 강력하게 반응하고 이용자는 다음 보상을 기대하며 계속 스크롤하게 된다.

둘째 작업 기억(Working Memory)의 인지적 과부하



▲사진 출처: 브런치

이다. 숏폼은 작업 기억의 구조를 무력화해 △배경음 △영상 △자막이 모든 정보를 사전에 요약 및 압축해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정보를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비판할 기회 없이 결론만 빠르게 습득하게 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수동적 정보 습득 방식이 학습자의 뇌를 장기 기억으로의 정보 전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에 적응시킨단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특히 청소년에게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23년 미국의학협회 저널(JAMA)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9~13세 어린이 중 미디어에 노출이 잦은 아이들은 거의 노출되지 않은 아이들보다 △기억력△읽기△어휘력 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청소년기는 뇌 발달의 결정적 시기로 이 시기의 집중적인 숏폼 노출은 뇌가 앞으로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구조를 재편성하는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신경과학적 변화는 학습 환경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외대학보가 우리학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을 통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숏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3%가 '학습 및 과제 수행 시 집중력 저하'를 겪고 있다 밝혔다. 또한 36.8%는 '긴 글에 대한 독해 부담(문해력 저하)'을 체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에타에선 숏폼 중독으로 인한 학습 고충을 토로하는 글이 종종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험공부를 해야 하는데 10분도 집중을 못 한다" "강의를 듣다가도 무의식적으로 쇼츠를 보고 있다" "교수님이 PDF 과제를 내줬는데 10페이지가 넘어가니 도저히 읽히지 않는다" 등 집중력 저하를 호소하는 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오로지 학업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크루트(Incrut)가 지난해 5월에 진행한 '직장인 숏폼 시청 여부' 설문조사에서도 27.4%가 스스로 숏폼 중독이라고 인정했으며 특히 20대에선 48.9%가 중독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긴 업무 메일이나 보고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뉴스 기사를 제목과 댓글만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나아가야 할 방향

국내에서도 숏폼 중독의 폐해를 막기 위한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실질적 실행은 더딘 상태다. 국회에서 알고리즘(Algorithm) 투명성을 요구하고 중독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등이 발의됐으나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의 과도한 규제란 반발과 표현의 자유 및 혁신 저해 우려가 충돌하는 상태다. 정부는 디지털 웰빙(Digital Wellbeing)* 기능 확대를 권고하는 등 플랫폼의 자율규제에 무게를 싣고 있으나 이용 시간 제한과 휴식 알림 등의 기존 자율규제 조치는 실효성이 제한적이란 지적이다. 플랫폼 기업들은 알고리즘의 중독 위험성을 인정하기보다 크리에이터 지원이나 디지털 리터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숏폼 중독 문제가 플랫폼의 고의적 설계에 기인한단 인식이 확산되며 국내외적으로 대응 움직임이 나타난다. 지난 2023년 10월 미국 40여 개 주가 틱톡과 메타(Meta)를 상대로 청소년 정신 건강에 해를 끼

치는 중독성 기능을 고의로 설계했다며 연방 소송을 제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일례로 유럽연합(EU)은 지난해 2월 16일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이하 DSA)**을 본격 시행하며 강력한 법적 규제를 현실화했다. DSA는 거대 플랫폼 기업(VLOP: Very Large Online Platform)에 대해 구체적인 책무를 강제한다.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플랫폼은 중독성 유발 등 시스템적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규정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강력한 이행을 담보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지도가 아닌 기업의 사업 모델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다.

이코노미 조선(ECONOMY Chosun)에 따르면 이성업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의 자율규제에만 맡기기엔 이미 해악이 너무 크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휴식 알림을 띄우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으로 플랫폼의 정교한 알고리즘이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 의미다. 대신 이용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플랫폼에 실질적 책임을 묻는 법적 제도적 논의가 시급하다. 또 EU의 DSA와 같이 △알고리즘 선택권△중독성 위험평가△투명성 요구 등을 포함한 포괄적 규제 틀 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제도적 규제만으론 한계가 있기에 학교와 기관 차원의 체계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수적이다. 학생들이 미디어의 구성된 현실을 제대로 읽어내고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인 차원의 실천도 중요하다. △디지털 웰빙 앱 활용△디지털 프리존 만들기△스크린 타임 설정△주기적 휴식 등 일상 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디지털 디톡스 방법을 통해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정부△플랫폼△학교이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숏폼 중독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웰빙(Digital Wellbeing):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술을 건강하게 활용하여 삶의 균형을 찾는 것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이하 DSA): 유럽연합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법안으로,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중독성 설계 방지 등을 골자로 한다. 2024년 2월 16일 본격 시행되었다.

이해봄 기자 11haebom@hufs.ac.kr

www.시사한줄토막.com

정치 더불어민주당, 정치 검사들을 향해 경고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반발한 검사들을 향해 지난 12일 "항명 검사장 전원 보직 해임 및 의원 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 즉시 착수"를 촉구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 최고위 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며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던 의지를

밝히며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겠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지금까지의 정치 검사들의 각종 조작 수사와 기소의 진실과 항명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밝혔으며 정청래 대표도 "△국정조사△청문회△특검 등 모든 수단으로 불법으로 드러난 행위를 사법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사회 주민등록본 표기, 앞으로 이렇게 달라진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2일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할 것을 예고하고 재혼 가정 등에서 사생활 노출을 막기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표기 방식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재혼 사실이 등본 제출을 통해 외부에 노출돼 자녀가 겪게 된 불편함을 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 주민등록등본엔 재혼 배우자의 자녀가 '배우자의 자녀'가 아닌 '세대원'으로 표기되며 형제자매·조부모 등도 구체적 관계 대신 '세대원' 또는 '동거인'으로 단순화된다. 다만

민원인이 원할 경우 기존 표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에선 외국인 이름 표기 개선 내용 또한 담고 있다. 지금까지 등본엔 로마자만 가족관계등록 서류엔 한글 이름만 표기돼 두 문서가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 외국인 주민등록표엔 한글 이름과 로마자 성명이 동시에 기재된다. 입법예고는 오는 12월 23일까지 진행된다.

경제 '고급 이미지' 흔들리나...페레로 로쉐 원산지 중국산 전환

초콜릿 브랜드 '페레로 로쉐(Ferrero Rocher)'의 우리나라 판매 제품 원산지가 이탈리아산에서 중국산으로 변경됐다. 지난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페레로 로쉐 측은 우리나라 시장에 중국산 완제품을 납품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고급 이미지'로 높은 가격에도 인기를 얻었던 페레로 로쉐는 이번 변경으로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소비자들은 "중국산을 그 가격에 살 이유가 없다" "이제 안 먹겠다" 등의 부

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페레로 로쉐 코리아는 페레로 로쉐의 전세계적 인기와 성공을 고려할 때 공급망과 역량을 신중히 평가한 뒤 서비스 수준 기준을 유지 및 공급하기 위해 생산공장이 이전됐음을 밝혔다. 이에 덧붙여 전 세계 모든 생산 공장은 페레로 로쉐가 중앙에서 정의한 동일한 품질 기준을 따른단 입장을 보이며 뛰어난 품질로 특별한 맛의 경험을 항상 제공하고자 하는 그들의 목표를 밝혔다.

국제 "공급 부족 아니다" OPEC 전망 수정에 국제 유가 급락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내년 석유 시장이 공급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던 기존 전망을 철회하고 수급 균형을 관측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했다. 12일(현지 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배럴당 58.49달러로 전장 대비 4.2% 하락했다. 시장에선 미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종료가 임박했다단 소식이 추가 하락을 방어했다고 분석했다. 석유수출국기구는 주요 산유국 모임인 OPEC플러스(+)의 중산 여파로 다음 해 석유 수급이 균

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해 기존의 공급 부족 전망을 수정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올해 미국 석유 생산량 전망을 상향했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석유 수요가 오는 2050년까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립성에 대한 이해

흔히 기자는 기사를 쓸 때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중립성을 지키며 글을 쓰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기사에 기자의 가치관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과거부터 지금까지 글을 쓸 때 중립성을 지키며 내가 바라는 글을 쓰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항상 던져왔다.

시간이 흐를수록 인터넷이 발달한 우리 사회는 누구나 쉽게 정보를 게시할 수 있게 됐다. 그만큼 그 속에선 오류를 가진 정보들이 존재했고 이러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 간엔 여러 분쟁이 발생했다. 그러한 사회 속에서 성장해 온 나는 기자가 돼 사람들이 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꿈을 가지게 됐다.

고등학교 시절 나는 기자의 꿈을 이루고자 여러 사회학 분야를 공부하며 사회 현안을 분석했고 이를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는 연습을 꾸준히 이어갔다. 처음 글 쓰기 연습을 시작했을 때 가졌던 마음가짐은 '내 가치관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사실만을 전달하는 중립적인 글을 써야겠다'였다. 그러나 이러한 내 마음가짐을 갖고 글을 쓰는 것은 쉽지 않았다. 처음엔 내가 쓰는 문장이 객관적 논리에 기반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가치관에 의해서만 작성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주의가 많이 기울었다. 이는 글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중립성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하게 됐고 결국 사회 문제를 지적하는 것조차 나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일지 걱정하기 시작했다. 보기에 중립성을 잘 지킨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사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인지 그저 소개하는 것인지 의도가 불분명한 글을 써내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결과 글을 쓰려고 했던 목적과는 다른 글이 만들어졌고 나 자신에게도 떳떳하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하나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가진 여러 기사를 읽으며 나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사회적으로 '보기 좋은 글'을 쓰는 것이 중립성을 지키는 길 이 아닌 오히려 진실을 흐릴 수 있는 것이다.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글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담아내며 때론 과감하게 문제를 지적하는 글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이후 나는 글을 쓸 때 중립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를 중심에 두기 시작했다. 덕분에 한층 깊고 풍부한 글을 쓸 수 있었고 글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나의 시야 또한 넓어졌다. 이 경험은 내 글쓰기 태도에 큰 영향을 줬으며 왜곡될 수 있었던 '중립성'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됐다.

기자로써의 중립성은 아무 입장도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닌 사실을 충분히 탐구하고 다양한 관점을 공정하게 보여주는 것임을 깨달았다. 나는 내 가치관에 따라 옳고 그르다고 생각되는 주제를 선택하되 그 주제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여러 방면의 근거를 제시해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반대 측의 의견이 충분히 제시될 수 있도록 반론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태도 역시 기자로써 지켜야 할 책임이라 믿는다. 이러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나는 앞으로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글을 통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김주연 기자

[책 '속초에서의 겨울'을 읽고] 이방인이 바라보는 속초

'엘리자 수아 뒤사팽(Elisa Shua Dusapin)는 프랑스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다문화 가정에서의 정체성과 각 국가 내 공동체 사람들과의 소통에 대해 끊임없이 고찰해 왔다. 그녀는 속초와 프랑스 노르망디(France Normandie) 사이에서 비슷한 느낌을 받고 속초의 많은 모습 중에서도 춥고 매정한 겨울을 선택했다. 소설 안에서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은 자전적인 성격을 띤다.

펜션(Pension)의 알바생인 '나'는 프랑스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이유도 모른 채 떠나버린 아버지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이방인이라 의식을 갖고 항상 갈등하며 살아왔다. 어느 날 노르망디 출신 청년 남자 엘 케랑(Yan Kerrand)이 속초에 머무른다. 그는 만화가로서 영감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떠돌다가 속초를 방문한다. '나'는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고향 출신인 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자신의 남자친구에게서 진정한 애정을 느끼지 못한 '나'는 케랑과 함께 비무장지대나 설악산 국립공원을 방문한다. 그곳에서 그들은 대화조차 하지 않은 채 풍경을 구경하지만 '나'의 신경은 온통 그에게로 향하고 있다. 둘이 돌아올 때면 펜션의 방 안에서 연필 소리가 격하게 들리곤 했다. 한 여자를 그린 후 곧 잉크로 뒤덮여 버리는 걸 반복할 때마다 '나'는 숨죽이고 보곤 했다. '나'는 직접 한 요리를 케랑이 먹어주길 바랐지만 그는 첫날 '나'가 갈을 쓰다 요리에 피가 스며드는 것을 보고 이후 '나'의 요리를 일절 거절했다. 그가 끝내 먹겠다고 말한 다음 날 케랑은 훌쩍 펜션을 떠난다. 그가 묵던

방에는 화첩이 남겨져 있었는데 '나'가 어렸을 적 갈고리에 걸려 생긴 흉터가 그려져 있었다.

소설의 전체적인 서술은 차가운 속초의 배경을 세심하게 묘사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잔잔하게 그린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한 나라의 피를 공유하면서도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채 방황한다는 점에서 두 인물은 닮아 있다. 정서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나'와 물리적으로 떠도는 만화가 케랑이 잠시 머물다 헤어진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작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읽힌다.

소설 속엔 여러 비유와 암시가 등장한다. 비무장지대는 우리나라의 경계이자 두 '경계인'이 함께 방문하는 장소로서 작가의 내면적 갈등을 상징한다. 또한 '나'가 케랑에게 끌렸던 이유는 부재한 아버지의 존재를 그에게 투영했기 때문이다. 그를 통해 자신의 근원을 이해하고자 했지만 결국 케랑은 그녀가 찾던 해답이 될 수 없었다.

훈훈이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이방인이 돼본 적이 있다. 말보다 침묵으로 교감하는 두 인물은 소속감 없이 떠도는 인간의 외로움과 정체성의 혼란을 보여준다. '속초에서의 겨울'은 완벽히 속할 수 없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 속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묻게 하는 작품이다.

송주원 기자 11juwon@hufs.ac.kr

[영화 '불량소년, 너를 응원해!'을 보고] 편견 속에서 피어난 가능성의 이야기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일본을 사로잡은 드라마 영화 '불량소년, 너를 응원해!(不良少年、 너를 응원해!)'는 학원 강사 츠보타(坪田 義典)의 실화를 스크린으로 옮겨온 화제작이다. 도이 노부히로(土井裕泰) 감독은 구제 불능 문제아로 낙인찍힌 한 소녀의 내면에 숨겨진 가능성과 순수함을 새롭게 그려낸다. 영화는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상식을 가진 채 무지의 여왕으로 불리던 쿠도 사야카(工藤 さやか)가 명문대 게이오대학(慶應義塾大学) 진학이란 불가능에 가까운 꿈을 마주하게 되는 과정을 따라간다.

학교에서 공부와는 답을 찾은 문제아로만 존재하던 사야카는 친구들과 노는 것 외엔 관심이 없다. 그녀는 주위의 편견 속에서 자신이 무능하던 것을 의식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를 절대적으로 믿어주는 엄마와 포기를 모르는 초공정 츠보타 선생을 만나며 상황이 변한다. 선생님의 확신 어린 말 한마디 "너는 할 수 있어"는 사야카에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마침내 그녀는 우등생도 꿈꾸기 힘들다는 명문대 진학이란 도전을 선포하는데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다.

초기 학습에서 사야카는 말 그대로 바닥부터 시작했다. 그녀의 상식 수준은 거의 초등학교 수준이며 산타를로스의 존재도 아직 믿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사야카는 오히려 사야카는 열심히 노력할수록 자신의 한계와 마주하게 되면서 슬럼프에 빠진다. 주위에선 여전히 그녀를 무시하고 아버지마저 그녀의 도전을 외면한다. 그 과정에서 사야카는 결국 학원을 관두겠다고 츠보타 선생님에게 모진 말을 퍼붓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야카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의 응원 속

에서 조금씩 변한다. 어머니는 밤낮으로 일하며 그녀의 학원비를 지원해주고 선생님은 좌절한 그녀에게 항상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북돋아준다. 사야카는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이 정말로 해결 불가능한 인간이 아니란 것과 편견이란 뜻에서 벗어나 자신의 신념을 지키겠다는 결단이 필요했음을 깨닫는다.

영화 속 사야카는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평범한 소녀이지만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 침묵하고 견딘다. 영화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노력한 그녀가 세상의 편견과 싸워가며 명문대 진학이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 때까지 얼마나 많은 내적 갈등과 절망의 순간들을 견뎌내야 했는지에 주목한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알려준다. 세상이 정한 틀에서 벗어나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이에 대한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세상이 실패자라고 하더라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긴 시간을 버텨온 모든 수험생들에게 이 글을 전하고 싶다. 결과가 어찌 됐든 당신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온 그 시간은 이미 하나의 합격이다. 세상이 정한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는 용기야말로 진짜 힘이라는 것을 사야카처럼 우리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이해봄 기자 11haebom@hufs.ac.kr

1109호 학보를 읽고

변화의 길목에서, 우리학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외대학보

늦가을의 찬바람이 교정을 스치며 낙엽이 흩날린다. 한해의 끝이 다가올수록 캠퍼스의 공기는 차가워지지만 그 속에서도 학생사회는 온도는 높아지고 있다. 바로 총장 선거 때문이다. 이번 외대학보 1109호는 총장 선거와 더불어 학내의 다양한 현안을 다루며 우리학교를 기록했다.

먼저 3면에선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도서관의 악취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지난해부터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제기된 불만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점에서 학생들의 불편이 크다. 도서관은 학생들이 오래 머무는 공간인 만큼 단순한 시설 관리 차원이 아닌 학습권 보장과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학교의 지속적인 조사와 조치가 이어지는 동시에 학생들도 쓰레기 처리와 환경 관리에 협력하며 함께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

4-5면에선 제1차 총장 후보자 초청 공개토론회를 다뤘다. 후보자들은 인문학 전공과 AI 융합교육 사이에서 각자의 철학을 드러냈고 재정 확충과 교육 혁신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단순한 공약 발표의 장을 넘어 우리학교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의미가 컸다. 이번 선거가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민주적 과정으로 이어져 대학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6면에선 새롭게 개편된 도서관 앱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었다. 접근성 개선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좌석 일립 기능 오류와 복잡한 이용 절차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학생이 많았다. 학교가 앞으로 학생 의견

강예원 (아시아·이란 23)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을 수렴하고 시범운영 기간을 뒤 개선안을 검토한다면 학생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변화의 과정 속에서도 사용자 중심의 시선이 유지되길 기대한다.

8-9면에선 총장 후보자들의 공약을 세부적으로 분석했다. △재정 안정화△캠퍼스 인프라 개선△AI 융합교육 강화 등 대부분의 후보가 공통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의 발전 방향이 시시각각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간의 신뢰 회복과 학문적 다양성 보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학생들의 투표 비율이 확대된 만큼 앞으로의 선거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와 비판적 검토가 더 활발해지길 바란다.

10면에선 캄보디아 납치 사건을 다뤘다. 단순한 해외 범죄가 아닌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접근한 시선이 돋보였다. 외교적 대응의 한계와 현지 부패 문제를 짚으며 피해자 보호 및 사전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우리 사회가 해외 고수의 일자리 광고나 온라인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더 높이고 대학 차원에서도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학생들에게도 의미 있게 다가왔다.

이번 1109호는 우리학교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세심히 담았다. 외대학보는 우리학교와 사회를 기록하는 든든한 언론이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일상과 사회적 의제를 연결하며 더 넓고 깊은 시선으로 세상을 비추길 응원한다.

1109호 학보를 읽고

여명의 순간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캠퍼스에 변화의 바람이 스며들고 있다. 나무들은 저마다의 색을 깊게 물들이며 계절은 다음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외대학보 역시 학내외의 현안을 직면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꾸준한 기록과 취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외대학보 1109호에선 △도서관 악취 문제△재정개편된 도서관 앱△우리학교 제13대 총장 선거△캄보디아 납치 사건 등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논의해야 할 지점을 조명하고 있다.

3면에선 도서관 악취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장기간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원인 규명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이에 우리학교 측은 하수관로 환경 및 건물 구조 등을 고려하며 원인을 파악하고 보완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아직 뚜렷한 해결에 이르지 못했다. 도서관은 학습의 중심 공간이며 쾌적함은 선택이 아닌 기본 조건이다. 지속적인 악취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저해하므로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학생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원인 규명과 장기적 대책 수립이 이어져야 한다.

6면에선 최근 개편된 도서관 앱(Application, 이하 앱)에 대한 학생들의 불편을 다루고 있다. 장애인 이용 편의를 강화했던 점에서 개편 취지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외출 후 울리지 않는 복귀 알람△좌석 연장 알림 오류△좌석 예약 과정의 번거로움 등 실사용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도서관 앱은 학생들의 학습에 밀착된 필수 서비스이기에 기능 안정화와 사용자 의견 반영이 우선돼야 한다. 앞으로 개편 과정에서 사전 만족도 조사와 시범 운영 등의 방

안을 통해 학생들의 실제 이용 경험을 반영하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선 단연 우리학교 제13대 총장 선거에 대해 다루고 있는 특별기획면과 특집면이 눈에 띈다. 이번 선거에선 학생의 투표 반영 비율이 지난 선거 대비 5%에서 12%로 확대돼 학생들의 투표권이 선거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됐다. △교육 혁신△재정 확충△캠퍼스 인프라 개선 등이 후보자들이 공통으로 강조한 주요 공약이었다. 이번 선거는 우리학교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특정 집단의 이해만 반영되는 선거가 아닌 학내 모든 구성원 전체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총장이 선출되길 기대한다.

10면에선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 대상 납치 및 감금 사건을 다뤘다. 피해자들은 △금급과 폭행△강제노동△몸값 요구 등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현지 공권력의 부재와 구조 체계의 한계 속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해외에선 같은 방식의 유인과 피해가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그 규모와 범위 또한 확인되지 않은 채 확산 중이다. 더 늦기 전에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과 실질적인 예방과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우리는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문제를 직시하고 질문을 멈추지 않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은 때론 더디고 불투명하다. 그러나 여명이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 밝아오듯 변화의 조짐은 항상 곁에 있기 마련이다. 외대학보가 앞으로도 학내 구성원 모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길을 지속적으로 밝혀가기를 바란다.

장휘영(통번역·스페인어 23)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어서와 해외는 처음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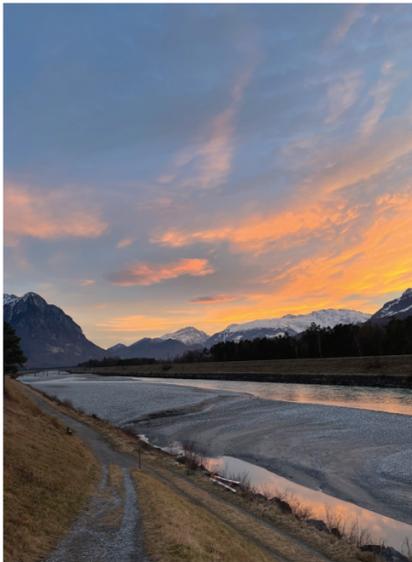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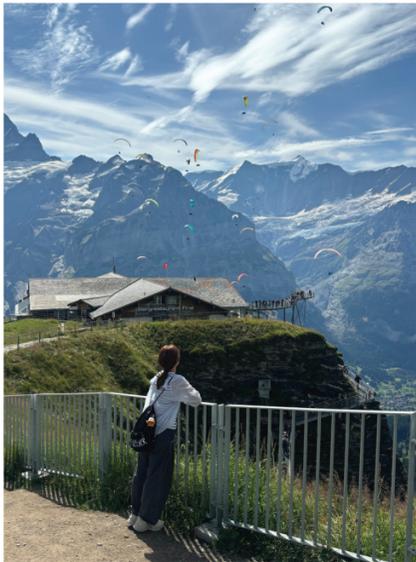
스위스에서 꿈같은 한 학기

스위스를 떠올렸을 때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비싼 물가가 떠올라 '스위스가 유학을 하기 적합한 곳일까'란 고민이 들었다. 그럼에도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하며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어울려보고 싶어 호수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루체른(Lucerne)에 있는 대학교에 지원했다. 스위스는 △독일△이탈리아△프랑스와 국경이 맞닿아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버스나 기차로 쉽게 국경을 드나들 수 있던 점이 신기했다. 덕분에 학기 중에도 △독일

스위스를 방문하게 된다면 풍두 말고도 다양한 재료에 치즈를 녹여 얹어 먹는 라플렛(Raclette)을 한 번쯤 먹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자연환경이 풍부한 곳인 만큼 등산이나 러닝과 같은 활동적인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였다. 그 중 기억에 남는 경험은 교환학생 친구들과 다 같이 그린델발트(Grindelwald)로 등산하기로 했던 날이다. 가기 전날까지도 '등산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는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결국 함께 간 친구

충분히 둘러볼 수 있어 당일치기로 기차여행을 다니기 좋다. 기차 이동 중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또한 너무 아름다웠기에 기차를 타는 것 자체도 하나의 여행처럼 느껴졌다. 길게 스위스에 머무를 계획이 있다면 모든 교통수단을 절반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하프 패어 패스(Half-fare Pass)를 추천한다. 더불어 저녁 7시부터 오전 7시까지 무제한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나이트 패스(Night GA Pass)를 같이 구매할 것이 교통비를 아끼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비엔나△영국△이탈리아△프랑스△핀란드△헝가리 등에 다녀올 수 있었다.

기숙사는 혼성으로 5명씩 배정된다. 각자 방이 있고 거실과 부엌을 공유하는 방식이라 크게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었다. 오히려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룸메이트들과 요리를 해 먹고 대화를 하는 시간이 좋았다. 매일 기숙사 창밖으로 보이는 필라투스 산(Pilatus)과 리기산(Rigi) 그리고 시간 맞춰 밥 먹으러 나오는 양 떼와 염소들을 보며 스위스에 살고 있다는 걸 실감했다. 스위스는 외식비가 특히 비싸 외식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교환교의 친구들과 처음 스위스 대표 음식인 풍두(Fondue)를 먹으러 갔다 치즈와 감자만 먹었는데 인당 5만 원이 나와 충격을 받았다. 이후 룸메이트 중 스위스 현지 친구가 직접 해주는 풍두만 먹었던 기억이 있다.



들 한 명도 빠짐없이 7시간의 등산을 무사히 마쳤다. 그린델발트의 정상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촬영지가 있어 관광객이 많은 장소이지만 보통 정상까지 케이블카로 바로 이동해 등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사람 없이 한적하고 색다른 매력이 있었다.

스위스는 교통비가 비싸지만 그만큼 기차 시스템이 잘 돼 있다. 열차 지연이나 취소로 약명 높은 주변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더욱 그렇다. 스위스 도시들은 반나절이나 하루면

스위스에서 한 학기를 살아본 경험은 앞으로도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것이다. 교환학생을 갔을 때 고민 되는 사항이 있다면 워든 용기 내서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6개월이란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후회 없는 교환생활을 즐기고 오길 바란다.

김예은(중국 · 중언문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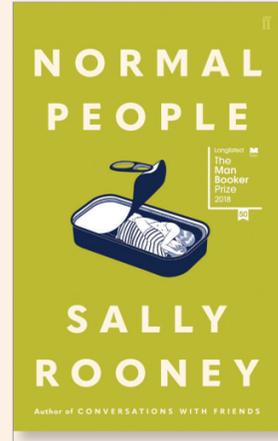


읽어서 세계속으로

아일랜드

<노멀 피플>

-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 -



샐리 루니(Sally Rooney)의 '노멀 피플(Normal People)'은 아일랜드의 작은 마을에 사는 코넬(Connell)과 메리앤(Marianne)의 관계를 촘촘하게 따라간다. 코넬은 모두의 선망을 받는 운동선수지만 흠어머니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반면 메리앤은 부유한 집안의 딸이지만 가족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학교에선 공공연한 따돌림의 대상이다. 다른 세계에 속한 듯 보이는 두 사람의 접점은 코넬의 어머니가 메리앤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것이다. 코넬과 메리앤은 누구보다 서로를 잘 이해하는 사이가 되지만 코넬은 메리앤을 싫어하는 친구들 때문에 둘 사이를 비밀로 한다. 그러나 이야기의 무대가 더블린(Dublin)의 트리니티 칼리지(Trinity College)로 옮겨가며 이들의 사회적 위치는 완전히 역전된다. 고향에서와 달리 메리앤은 지적이고 매력적인 인물로 주목받으며 사교의 중심에 선다. 반대로 코넬은 그들 사이에서 계급적 이질감과 소외감을 느끼며 곱들게 된다. 대학 시절 내내 코넬과 메리앤은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한다.

'노멀 피플'은 이런 모습을 통해 청년 세대가 겪는 본질적인 고독과 불안에 파고든다. 특히 돈 문제는 두 사람의 관계에 끊임없이 그림자처럼 드리운다. 코넬은 장학금을 받으며 "세상을 현실로 만드는 핵심은 돈"임을 깨닫는데 이 장면은 씁쓸하다. 또한 메리앤이 그토록 소속감을 갈망하면서도 어디에서든 자신은 결국 똑같은 사람일 것이라 체념하는 모습은 관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독을 드러내기도 한다.

두 사람은 사소한 오해로 번번이 엇갈리지만 결국 관계를 통해 성장한다. 코넬이 메리앤에게 선한 면모를 선사했고 코넬은 메리앤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됐다. 소설은 사람들이 서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한다. "사소한 결정들로도 삶이 크게 바뀔 수 있는 기묘한 나이"에 만난 그들은 "누군가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들을 내리고 그리고 나면 삶 전체가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고 상대방 덕분에 자신이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됐다고 느낀다.

소설은 명쾌한 결말을 제공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아이러니한 결말을 제시한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너무나도 깊이 의존한 나머지 상대방이 없는 삶을 살아갈 힘을 서로에게서 얻게 된다. 관계를 통해 홀로 설 힘을 얻게 된 것이다.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는 불안을 안고 그저 삶을 지속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샐리 루니가 말하는 '노멀 피플'이 살아가는 방식일지도 모른다.

소설은 명쾌한 결말을 제공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아이러니한 결말을 제시한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너무나도 깊이 의존한 나머지 상대방이 없는 삶을 살아갈 힘을 서로에게서 얻게 된다. 관계를 통해 홀로 설 힘을 얻게 된 것이다.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는 불안을 안고 그저 삶을 지속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샐리 루니가 말하는 '노멀 피플'이 살아가는 방식일지도 모른다.

윤고은 기자 10goeun@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26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 전형 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5.09.22.(월) ~ 10.02.(목)	2025.11.17.(월) ~ 11.28.(금)
면접전형	2025.10.18.(토) 10:00	2025.12.13.(토) 10:00
합격자 발표	2025.10.31.(금) 16:00 예정	2025.12.26.(금) 16:00 예정
등록예치금 납부	2025.11.03.(월) ~ 11.07.(금)	2025.12.29.(월) ~ 2026.01.02.(금)

◆ 모집 전공

모집 과정	지원 전공
교원자격증 취득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교육 영어교육 컴퓨터교육 스페인어교육 일본어교육 중국어교육 역사교육 일반사회교육 유아교육 수학교육 상담심리(전문상담교사 2급)
모집 과정	지원 전공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영어교육 독서논술교육 문화콘텐츠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나. 외국대학, 독학자는 졸업자에 한해 지원 가능
다.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라. 지원전공의 관련학과(전공)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전공학점 30점 이상 이수자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입학 문의 : 교육대학원 교학처 입학담당관 TEL. 02-2173-2419 FAX. 02-2173-3358
- 주 소 :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건물 1층 111호실
- 찾아오는 길 :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1번 출구) 걸어서 5분 거리
- 홈페이지 : gse.hufs.ac.kr
- 이메일 : hufgse@hufs.ac.kr

◆ 우대사항

- 가. 현직교사 장학금 지급
- 나. 교원자격증 기 취득자는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면제

◆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유웨이어플라이 Uwayapply.com)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 *우편(등기),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접수 기한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나호를 말한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08seungwon@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정운
편집인 겸 주간 지성욱
편집장 이승원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청년 우울증, 개인 문제를 넘어선 사회 위기

우울증은 무언가에 대한 △관심△사고 과정△수면 등 전반적인 정신 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돼 일상생활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우울증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이후 개인의 삶에 파고들어 이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우울증

환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년층 사이에 만연하게 퍼진 우울증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조속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 기사를 통해 △청년층 우울증 문제의 현황△청년층 우울증의 원인△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층 우울증 문제의 현황

최근 몇 년 사이 청년층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대 우울증 환자 수는 지난 2017년 7만 8,016명에서 지난 2021년 17만 7,166명으로 4년 만에 127.1%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으며 전체 평균 증가율(35.1%)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지난 2023년 기준으로 2030 우울증 환자는 전체 우울증 환자의 36%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 2018년 대비 약 10%p 상승한 수치이다. 우울증 치료제 처방 또한 증가했다.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연령대별 마약류 및 항정신성의약품 처방 현황에서 20대는 2.6배 증가했으며 전 연령대에서 청년층만이 유일하게 불안 및 우울증 치료를 받은 환자 수가 늘어났다. 이처럼 청년층에 퍼지는 우울증은 다른 연령대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던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대학 내 심리 상담 수요 증가는 이러한 현황을 뒷받침한다. 김해진 서울대학교 경영대 학생 상담센터 상담교사는 매일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2년 전부터 상담 신청자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며 “상담교사가 매일 다섯 건씩 짝 채워 상담해도 학생들이 한두 달은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서선이 우리학교 상담센터 상담교수 또한 “현재 우리학교도 상담 수요가 높은 편이다”며 “상담 대기기간이 평균 1~2개월 이어서 학생들을 위해 대기기간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대기가 많은 편이다”고 밝혔다. 또한 “상담 수요 부분에선 대부분의 대학교 상담 심리센터가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고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심리 상담에 대한 수요 증가는 현재 대학가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된 현상이다. 우리학교 재학생 A 씨의 경우 “상담 신청을 겨우 성공했다”며 “주변에서 들어보니 늦게 신청한 사람은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안내 받았다”고 전했다.

이러한 청년층의 우울증은 개인의 정신 기능 저하뿐 아니라 생명과도 직결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지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자살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 부검 결과 86.3%가 정신 질환을 앓았

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74.5%는 우울 장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청년층에서 증가하고 있는 우울증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던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년층 우울증의 원인

청년층 우울증은 △과도한 경쟁 스트레스△미래에 대한 불안△외로움 등이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깊게 연관돼 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에 자주 노출되는 청년층은 우울증에 더 취약하다. 이 중 가장 자주 언급되는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감이었다. A 씨는 “학업 스트레스와 취업 준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부담감으로 인해 상담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리학교 재학생 B 씨는 “다가올 미래에 대해 상상하

다 보면 불안해지고 이로 인해 우울해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우리학교 재학생 C 씨 역시 “아직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졸업이 다가와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에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러한 반응들은 청년들이 느끼는 미래 압박이 청년층 우울증으로 직결됨을 보여준다.

과도한 경쟁 스트레스 역시 청년층 우울증 심화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KBS 뉴스에 따르면 유명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원장은 “청년기는 계속 뭔가 성취를 해야 하고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처해야 하기에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또한 “우리나라는 청소년기부터 과도한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그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신체적 활동이나 사회적 교류가 부족해 청년기에 우울증이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며 경쟁 심리로 인한 압박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에 대해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SNS로 인한 비교 심리와 외로움을 청년층 우울증의 급증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선영 이대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하 김 교수)는 K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SNS에서 타인의 좋은 모습만 보고 확대 해석하거나 온라인 위주의 단절된 인간관계 때문에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배성만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의 우울증은 △사회적 고립△유년기와 성인기의 불행한 경험△외로움과 긴밀한 연관성을 보였으며 이중 외로움은 특히 우울증과 가장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청년층의 우울증 심화 문제는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여러 사회 구조적 문제와도 맞물려 있던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단기 계약직이나 플랫폼 노동시장의 확대도 청년들이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게 된다”며 불안정성이 청년들을 무기력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핵심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원에서 실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은 취업과 소득 등 경제적 불안정을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아 구조적 요인이 청년층 우울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보여준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개개인의 미래 불확실성의 증대△사람들

간 상호작용의 저해△취업 시장이 개인의 우울증 위험을 높인 것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청년층 우울증의 증가는 더이상 개인의 심리적 문제만으로 치부될 수 없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국가 정책 적용이 필요하다. 예방 체계 강화와 치료 접근성 개선이 핵심 과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특히 청소년기부터 누적된 과도한 스트레스가 청년기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선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스트레스 관리가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

치료 접근성과 관련해선 해외의 프로그램들을 참고해 볼 수 있다. 영국 국립보건서비스(NHS)가 운영하는 IAPT(Improving Access to Psychological Therapies)는 성인의 주요 우울 및 불안 장애 환자의 심리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8년부터 약 120만 명 이상이 IAPT를 통해 치료를 시작했고 약 46%의 회복률을 기록하며 그 효과를 입증했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디지털 치료기 기인 DET(Digital Enabled Therapy)를 도입해 치료 접근성과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해 운영 중이다. 이는 무료 접근성과 온라인 치료 도입이란 점에서 그 장점이 있다. 미국 기업 렌더버(Rendever)는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노인 대상의 우울 증상 완화를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정서적 교류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받은 만큼 이러한 기술 기반 치료 모델은 온라인 활동에 익숙한 청년층에게도 맞춤형 해법이 될 수 있다. 청년층 우울증의 심각한 현황과 복합적인 원인은 더 이상 경시할 수 없는 문제다. 우울증은 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 한 세대에 영향을 주는 문제이며 청년들의 정신 건강 회복은 곧 우리 사회의 활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다.

현재우 기자 10jaewoo@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26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6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5.09.12(금) ~ 09.26(금)	2025.11.14(금) ~ 11.28(금)
고사장 발표	10.15(수) 15:00	12.10(수) 15:00
면접전형	10.18(토) 10:00 예정	12.13(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10.30(목) 15:00	12.18(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11.03(월) ~ 11.07(금)	12.22(월) ~ 12.26(금)

■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증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 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문학학과

3. 지원자격

-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 **지원자의 모국어가 외국어인 경우**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과 중등교육 및 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접수방법

- 가.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나.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지원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가. 공통제출 서류
-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사이트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4. 재학 전학전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편입생은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 5) 학력조회증서 1부(원본)
- 나. 3가지 졸업 트랙 운영
- * 논문(24학점 이수), 연구보고서(28학점 이수), 추가학점(32학점 이수)
- 다. 장학금 : 성적우수(수소외국인/동문/근로장학금 등 장학 혜택)
-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 가능(외환과,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증에서 수혜(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면접 고사장소는 추후 홈페이지 공지)

8. 특전

- 가. 성적 우수자 3학기 졸업 가능(별도의 조기졸업심사 진행)
- 나. 3가지 졸업 트랙 운영
- * 논문(24학점 이수), 연구보고서(28학점 이수), 추가학점(32학점 이수)
- 다. 장학금 : 성적우수(수소외국인/동문/근로장학금 등 장학 혜택)
-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 가능(외환과,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증에서 수혜(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처

TEL. 02-2173-3982 FAX. 02-2173-3969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대학원 106-1호)



“국내 최고의 English Language Teaching Program”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야간) 2026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6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5.09.18(목) ~ 10.02(목)	2025.11.14(금) ~ 11.28(금)
고사장 발표	2025.10.15(수) 15:00	2025.12.10(수) 15:00
면접전형	2025.10.18(토) 10:00 예정	2025.12.13(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5.10.31(금) 15:00	2025.12.26(금)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5.11.03(월) ~ 11.07(금)	2025.12.29(월) ~ 2026.01.02(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증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 가.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 나. Department of ELT Materials & Technology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 (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일은 추후공지)

7. 기타사항

- 가. 신입생 입학신청서 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 명)

- 나.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 명)
- 다. 현직 교사 장학금(매학기 지급)
- 라. 학점 인정 혜택 (한국외대 TESOL 전문교육원 수료자, TESOL 관련 석사학위소지자, TESOL 자격증 취득자)
- 마. TESOL 연구과정(자격증 과정) 수료자 우대
- 바. 복수학위프로그램(템플대학교), 3+1 프로그램(하와이대학교)
- 사. Internship 프로그램(California State University, Selkirk College)
- 아. **추기학점이수트랙십(논문·졸업연구보고서 대체, 2021년 신입생부터 적용)**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tesolg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9.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교학처

TEL. 02-2173-3521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